

네덜란드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3
3. 한국과의 주요이슈 /5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6
2. 주요 산업 동향 /9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5

III. 무역

-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17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19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21
대한수입규제동향 /25
관세제도 /25
주요인증제도 /27
지적재산권 /29
통관운송 /31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32
- 외국기업 투자동향 /35
- 우리기업 투자동향 /37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39
- 진출형태별 절차 /41
- 투자입지여건 /44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46
- 조세제도 /49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51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특성 /52
2. 물가정보 /57
3. 바이어발굴 /59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60
5. 무역, 투자 진출시 애로사항 /63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64
7. 이주정착 가이드 /66
8. 출장가이드 /71

Netherlands



1992 MACELLAN Geographic/MapData Barbara, CA (800) 929-467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 명	네덜란드 왕국 (영문명: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현지어명: Koninkrijk der Nederlanden)
위 치	○ 유럽대륙의 북서부 - (50° 45'N - 53° 52'N, 3° 21'E - 7° 13'E)에 위치 - 동쪽으로 독일, 남쪽으로 벨기에, 북·서쪽으로는 북해에 면하고 있음
면 적	41,548 Km ²
기 후	온화 다습한 해양성 기후
수 도	암스테르담 * 행정수도는 헤이그
인 구	○ 16,398 천명(2007.10.30) - 높은 인구밀도: 1km ² 에 475 명 정도 거주(벨기에 137 명) - 남성(8,088,514 명), 여성(8,269,478 명) - 2007.6.20 기준 - 20 세 미만 (24.2%), 20-40 세(26.4%), 40-65 세(34.9%), 65-80 세 (10.8%), 81 세 이상(3.7%) - 2007.6.20 기준
주요 도시(인구)	암스테르담(73.7만), 헤이그(46.4만), 로테르담(60만), 유트레흐트 (26.5만)
민족(인종)	네덜란드족(게르만족 계통), 소수인종(모로코, 터키, 수리남)
언 어	네덜란드어, 영어(90%), 독일어(30%), 불어(20%)
교육	10학년 의무교육(100% 참가), 문맹율: 1%
평균수명	78세
종 교	카톨릭(32%), 신교(25%), 기타(5%), 무교(38%)
건국(독립)일	1558년
정부형태	내각 책임제
국가원수(실권자)	Queen Beatrix Wilhelmina Armgard

나. 경제지표

GDP	5,346억 유로(2006년) 2006년 성장률: 2.9% 구성: 농업 3%, 제조업 36%, 서비스 50%, 공공부문 9% *1인당 GDP: 32,683유로
인구	16,398천명(2007.10.30)
실질경제성장률	2006(2.9%), 2005(0.9%), 2004(1.5%)
노동력	10.5백만 (2006.12.31) 상업서비스 39%, 비상업 서비스 33%, 산업 11%, 농업 3%, 기타 3%
실업률	2006(5.5%), 2005(6.25%), 2004(6.4%)
소비자물가지수	2006(1.5%), 2005(1.4%), 2004(1.2%), 2003(2.1%)
화폐단위	Euro (2002년 1월부터 변경)
환율	- 1 EUR = 1,356.10 원 (2007.12.20) - 1 EUR = 1.4341 USD (2007.12.120)
외채	총 GDP의 약 52%
이자율	2006(3.75%), 2005(3.4%), 2004(4.1%) (Long-term Interest rate)
수출입	2006년 (수출 368,201백만 유로, 수입 331,358백만 유로) 2005년 (수출 322,516백만 유로, 수입 287,827백만 유로) 2004년 (수출 287,337백만 유로, 수입 256,990백만 유로)

다. 산업 및 교역

주요교역대상 및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교역대상: EU(66.6%), 독일(22.3%), 벨기에/ 룩셈부르크 (11.9%) ○ 주요 교역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원유, 자동차차처리기기, 사무용기기 및 부품, 승용차, 의약품 - 수출: 자동차차처리기기, 석유, 사무용기기 및 부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산업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 물류,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이 GDP의 59%를 점유 (제조업 비중은 22% 수준) - ICT, 바이오산업을 주요 지식육성산업으로 판단 - 화학산업 등 2000년 이후 평균 10% 성장 주요산업으로의 위치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최대의 투자국 1,450억 달러(1,600여개 업체) - 임금의 상승으로 비핵심 부문이전 촉진, 신 정부 우려 - 2004년 이후 ABN Amro, Shell 등 IT 부문 아시아 인력활용 등

라. 한국과의 관계

□ 체결협정

- 1966. 4. 29 특허 및 상표에 관한 각서 교환 (66.4.29 발표)
- 1970. 4. 28 사증면제협정 서명 (70.6.1 발효)
- 1970. 6. 24 항공협정 서명 (70.12.30 발효)
- 1974. 10.16 투자보장협정 서명 (75.6.1 발효)
- 1978. 10.25 이종과세방지 협정 서명 (81.4.27 발효)
- 1979. 2. 28 전대차관 협정 서명 (81.6.24 발효)
- 1982. 12. 1 경제기술협력협정 서명 (83.8.1 발효)
- 1995. 2. 3 해운협정 서명 (95.12.1 발효)
- 2002. 7. 3 사회보장협정 서명 (2002.10.1 발효)
- 2007. 2.14 세관협력협정 서명

□ 무역관계

- 대한 교역
 - (한국의 수출) 2006년 3,609백만 불 (전년동기비 1.0% 감소)
 - 주요수출품: 승용차, 무선 전화기, 칼라 TV, 건설중장비, 컴퓨터부품, 모니터, 프린터 등
 - (한국의 수입) 2006년 3,026백만 불 (전년동기비 9.6% 증가)
 - 주요수입품: 반도체 제조장비, 고철, 집적회로반도체, 합성수지, 낙농품, 의료용기기 등

□ 투자관계

- 네덜란드의 대한 투자: 미\$ 13,767백만 (1962-2006년 누계, 신고기준)
- 한국의 대 네덜란드 투자: 미\$ 2,972백만 (1962-2006년 누계, 신고기준)

□ 교 민: 약 1,200명 (상사 주재원 포함)

- 한인회
 - 주소: Leksmondhof 163, 1108 DC, Amsterdam, The Netherlands
 - 전화 번호: 31-(0)10-415-8559 (최규중)

2. 정치 사회 동향

가. 네덜란드 정치 제도

1) 정부 형태

- 국체: 입헌군주국
- 정부 형태: 내각책임제
- 기본적 정부 기구: 국왕 (Crown), 내각 (Council of Ministers), 의회 (States General), 국왕 최고자문위원회 (Council of State) 및 사법부 (Supreme Court)

2) 국왕 (Crown)

- 국가 원수로 세습제에 의하여 계승
- 연정 구성 협상 조정자 및 수상 후보 지명자로서의 역할이 있으나 국사에 대한 권한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다.

3) 내각 (Council of Ministers)

- 국정 최고 의결기관이며 총리가 의장임.
- 국정 전반에 관한 토의 및 의결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행정부는 14 개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임소장관 및 국무상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4) 의회 (States General)

- 상원 (the First Chamber) 및 하원 (the Second Chamber) 양원제임.
- 하원만이 단독 법률안 발의, 수정권을 보유, 상원보다 강력한 권한 보유
- 하원은 비례 대표제에 의한 직접, 보통선거에 의거 선출된 임기 4 년의 150 명의 직선의원으로 구성되며, 상원은 지방의회의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기 4 년의 75 명의 간선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최근 네덜란드 정치사회 동향

1) 네덜란드 총선 및 연정구성

- 2006 년말(11 월) 네덜란드 총선 실시
 - 2006 년 6 월말 소말리아 출신 여성의원의 시민권 박탈문제와 관련된 연립 정권 내 갈등이 결국 네덜란드 연립 정권의 붕괴로 이어져 11 월 새로 총선을 치르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 연정의 붕괴는 소말리아 난민 출신인 히르시 알리(Hirsi Ali) 전 자민당(VVD) 소속의원의 시민권 박탈문제와 관련 전 이민성 장관인 리타베르돈크(Rita Verdonk) 히르시 알리 의원이 지난 1992 년 네덜란드 망명 당시 시민권 획득과정에서 이름과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데서 비롯되었다.
 - 알리의원은 의원직 사임 즉시 미국으로 갈 것임을 발표하자 이럴 경우 네덜란드 이민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 의회가 알리 의원의 시민권 박탈 철회를 요구하자 리타 베르돈크 이민장관은 방침을 철회, 다시 알리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등 행정부의 미숙한 일처리가 이어졌다.

- 이에 네덜란드 의석의 27%인 42 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인 노동당(PvdA)이 베르동크 장관의 사임을 요구했으며 연정 참여 정당인 D-66 역시 이에 동조했으나 베르동크 장관의 사임요구안이 부결되자 D-66 이 연정탈퇴를 선언하게 된 것이다.

○ 총선 결과

- 2006 년 11 월 22 일 국회의원 선거로 좌파가 급부상

○ 우파인 기독교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집권 여당측이 패배하고 좌파인 사회당(SP)가 9 석에서 25 석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 현재 연정을 구성중인 집권여당측(기독교민주당-자유민주당-민주 66 당)은 모두 의석 감소
- 하지만 기독교민주당-노동당-사회당으로 구성된 연합내각은 의견대립으로 연정 구성 실패 하였으며 네덜란드 베아트릭스 여왕이 기독교민주당-노동당-기독교연합당 중심의 내각 구성을 요청함에 따라 오는 2007 년 초부터 연정구성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여 2007 년 2 월에 연정을 구성하는 데 합의하였다.

○ 2006 년 11 월 22 일 네덜란드 국회의원(하원) 선거 결과

당명(Party)	2006	2003	가감
기독교민주당(CDA)	41	44	-3
노동당(PvdA)	33	42	-9
자유민주당(VVD)	22	28	-6
사회당(SP)	25	9	+16
민주66당(D66)	3	6	-8
기독교연합당(CristenUnie)	6	3	-1
기타 소정당(6개)	20	18	+2
12개	150	150	-

주: 네덜란드 국회(하원)는 150석, 과반수이상 확보시 내각구성권 가짐

○ 연정구성

- 2007 년 2 월 기민당, 노동당, 기독교연합이 연정합의에 성공,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였다.
- 새 내각은 얀페터 발케넨데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이 전체 16 개 각료자리 중 절반인 8 개를 가졌고, 노동당이 6 개, 기독교연합이 2 개를 각각 차지했다.
- 이로써 새 연정 출범과 함께 네덜란드는 4 년여만에 반 이민정책 등 보수적 우파 정책에서 중도좌파 정책으로의 전환되고 있다.

2) 뜨거운 감자였던 '망명신청자(Asylum seekers)'에 대한 처리

- 네덜란드의 이민정책이 강화되기 전인 2001 년 이전의 망명신청자 처리 해결조짐
 - 2001 년부터 우파성향의 현재 집권여당은 이민정책을 대폭 강화하여 2001 년 네덜란드에 망명을 신청하여 보류된 채 대기 중인 12,000 명에 대해 사회당과 집권당 이 참여하게 대립해 왔다.
 - 집권여당 출신 이민성장관 Rita Verdonk 여사는 추방 강행 움직임을 보였으며 빈민층 및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는 사회당 및 노동당에서 강력 반발해 왔기 때문에 연정 구성과 관련 뜨거운 감자로 지속되어 왔으나 기독교민주당, 노동당, 기독교연합 등 중도 좌파색체가 강한 당들이 연정을 구성함에 따라 현재 동 문제는 재론되고 있지 않다.

3) 이민유입 정책 완화 전망

- 좌파성향의 기독교연합당(CristenUnie)이 연정에 참여함에 따라 망명신청자, 빈곤층 등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책이 반영될 전망이다.
- 까다로운 망명, 귀화절차도 장기적으로 완화될 가능성 있어
 - 네덜란드 정부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는 망명신청자, 귀화희망자를 대상으로 네덜란드어 시험, 기본 임금-나이, 가족조건 등을 까다롭게 적용하여 제 3국인의 망명을 최대한 억제 해왔다.
 - 하지만 동 건 역시 중도좌파 세력이 연정을 구성함에 따라 장기적 이민정책도 완화되는 방향으로 선화할 가능성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2007년 개정된 EU LCD 모니터 관련 규정

2004년부터 EU 내에서 각기 다른 규정 적용으로 인해 큰 논란을 일으켰던 LCD모니터 관세부과 건이 2007년 개정 안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동 문제는 LCD 모니터를 CN코드 84.71(컴퓨터모니터와 같은 코드일 경우 관세율 0%), 또는 CN코드 85.28(TV나 비디오모니터로 분류될 경우 관세율 14% 부과) 중 어디로 분류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각국의 상이한 판단으로 인해 EU 공동적인 관세율 부과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2007년 개정된 CN에서는 모든 모니터는 85.28로 분류된다. 따라서 84.71류로 분류되는 모니터가 없어져 EU의 공동관세 적용이 가능해 졌다.

나. 한국국민에 대한 임시체류비자(Mvv) 면제

네덜란드 외교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인들에 대한 임시체류비자(Mvv) 발급면제를 6월 1일부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그 동안 한국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임시체류비자 면제에 대해 법무부, 노동부 등과 조율한 결과 면제키로 결정했다고 발표

한국이 네덜란드의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년 전 일본인들에 대한 임시체류비자 발급면제가 이루어졌음을 비교할 때 한국인 역시 임시체류 비자 없이 네덜란드에 입국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네덜란드 정부는 강조했다.

한국인에 대한 임시체류비자 발급이 면제될 경우 그 동안 임시체류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었던 한국기업 관계자들은 무비자로 입국하여 현지에서 체류 허가에 대한 절차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임시체류비자는 관광목적이 아닌 비즈니스, 투자 등의 목적으로 네덜란드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대상자들에 대해 발급하는 비자로 동건의 경우 한국주재 네덜란드 대사관을 방문, 약 10여 가지에 달하는 서류제출과 체류허가를 득하기까지의 과정이 복잡하여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현지진출 우리기업 관계자들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였다.

특히 시급을 요하는 현지부임 등에 있어 임시체류비자 발급 지연으로 인해 기업입장에서의 손실은 막대했던 사유로 이번 추진되는 한-EU FTA 협상 준비에 앞서 임시체류비자 발급면제 건은 현지진출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을 요청하는 사항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임시체류비자 면제결정은 그 동안 우리정부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가 전격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을 감안, 한-네 교역 및 투자는 상호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한-EU FTA에 대한 입장

네덜란드 정부는 EU 회원국의 일원으로 2007년 5월부터 시작된 한-EU FTA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를 포함한 EU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제 2대 수출시장이며 한국은 EU측에서 볼 때 아시아의 중요시장일 뿐 아니라 최적의 거점으로 한-EU FTA는 양측 모두 중요한 이슈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의 경우 한국에 농업부분과 관련 돼지고기를 비롯해 치즈 등 낙농품 등이 수출되고 있으나 큰 규모를 점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EU 전체적으로 볼때도 미국과 비교 농림산업 부문의 대한 수출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한-EU FTA는 네덜란드를 포함한 EU 농림산품 대한 수출 증대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한-칠레, 한-미 FTA 체결과정을 통해 EU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번 FTA를 통해 한국의 기존 FTA 체결국(칠레, 미국)들과 동등한 수준에서의 경쟁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EU 회원국으로서 체결 성공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네덜란드 정부 경제목표

네덜란드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이외에도 경쟁적인 경제 구조 건설, 행정장애/규제 극복, 재정 건실화, 노동 경쟁력 확보 등을 경제 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다.

1) 경쟁적인 경제구조 건설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의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경쟁적인 경제 구조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쟁적 경제 구조 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의 확대, 국내 산업의 활성화, 수출 촉진 등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2) 행정장애/규제 극복

네덜란드 정부는 현재 네덜란드 및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불만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행정 장애(red tape)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 주요 정책 중 하나가 기업에 대한 행정 장애를 5년 내 현재의 1/4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재정 건실화

1980년대 대규모 항공기업인 Fokker사의 도산 등으로부터 시작된 경제 후퇴를 경험했던 네덜란드는 건실한 국가재정이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모토아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2007년에 이어 2008년 목표 중 하나를 네덜란드의 EMU 재정 균형으로 맞추고 있다.

4) 노동 경쟁력 확보 추진

네덜란드 정부는 현재 네덜란드의 문제점 중 하나가 비효율적 노동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로존에서도 높은 노동 임금과 짧은 노동 시간이 네덜란드의 중장기적 경제 성장에 가장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간은 네덜란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네덜란드의 평균 노동시간은 1,340시간으로 이는 유럽연합 평균 1,615시간, 미국 평균 1,815시간보다 낮은 수치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동시간의 확대를 추진하려 계획하고 있다.

네덜란드 경제기획청(CPB)은 5%의 노동증가는 국내총생산의 3~5%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하고 네덜란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확대 추진코자 했으나 현재 국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어 당분간 추진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최신 네덜란드 경제동향 및 전망

2003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04년부터 회복세로 진입한 네덜란드 경제는 2005년 부터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올라 2006년부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6년 네덜란드 경제는 2.9%의 성장률을 기록, 2000년대 들어 최고의 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2007년 역시 3.0% 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장세는 200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 경제기획부(CPB; Central Planning Bureau)가 2007년 12월말 발표한 경제 전망치에 따르면 2008년도 네덜란드 경제 성장률은 2007년 보다는 다소 낮지만 안정적 수치인 2.3~2.5% 수준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할 전망하고 있다.

네덜란드 경제 기획부는 2006년도부터 안정적인 유가 형성, 소비 지수, 가처분 소득 등이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독일, 영국 등 유로존 주요 국가들의 안정적인 성장 역시 네덜란드 경제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네덜란드의 각종 거시경제지표가 2000년대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게 됨으로써 네덜란드 는 유로존의 강력한 성장 축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덜란드 거시경제지표

구분	2005	2006	2007(전망치)	2008(전망치)
GDP(십억 유로)	505.6	534.6	556	582
GDP 성장률(%)	1.5	2.9	3.0	2.3-2.5
소비자신뢰지수(기준 100)	-22	10	15	N/A
생산자신뢰지수(기준100)	18	37	45	N/A
인플레이션(%)	1.7	1.1	1.7	2
실업률(%)	6.5	5.5	5.2	4.5
교역규모(백만 유로)				
-수출	322,516	369,250	395,000	
-수입	287,827	331,979	356,000	

자료원: CBS(네덜란드 통계청), CPB(네덜란드 기획경제부 2007.12.21)

1) GDP

- 2007년도 네덜란드 GDP성장률은 2006년에 이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루며 2.75%의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된다. 2000년대 이후 성장세가 급격히 하락, 2003년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던 네덜란드 경제는 2004년 1.5%의 반등 이후 2006년부터 본격적인 성장계도에 진입함으로써 당분간 유럽국가의 평균보다 훨씬 높은 2.5% 안팎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은 2.3-2.5%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가계소비/소비자 신뢰지수

- 내수의 침체로 인해 2005년까지 계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2005년에는 -1.2%를 기록했던 네덜란드 가계소비가 2006년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서비스, 식품부문 에서의 가계소비 의 큰 폭 증가폭에 힘입어 2006년 네덜란드의 가계소비는 전년대비 0.8%의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2007년 및 2008년에는 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6년 소비자 신뢰지수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치인 10을 기록하였다. 이는 2005년 -22와 비교했을 때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2007년에는 13까지 상승될 것으로 예측된다.

3) 제조업

- 2007년 네덜란드 제조업은 여전히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경기동향 지표인 생산자신뢰지수는 -38을 기록했던 2003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반전되어 2005년 18, 2006년 37을 기록했으며 2007년 4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인플레이션

- 2005년부터 지속된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2006년 네덜란드 인플레이션은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치인 1.1%를 기록하였다. 2007년 인플레이션은 1.7%, 2008년에는 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5) 실업률

- 최근 네덜란드 거시경제지표 중 가장 두드러진 긍정적인 측면은 교역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는 실업률을 들 수 있다. 2005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실업률은 2005년 6.5%를 기점으로 하락세로 반전 2006년 5.5%를 기록했으며 2007년은 5.2%, 2008년에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치인 4.5%까지 하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6) 교역

- 2007년에도 네덜란드의 상품수출 및 수입 역시 지속적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의 교역은 2006년 대비 수출, 수입 각각 7%-7.5% 정도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의 안정세, 유로존 경기 안정적 성장계도 진입, 내수산업 호황 등으로 긍정적 요인으로 인해 교역규모는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네덜란드 중앙은행 및 기획경제부(CPB) 전망자료, 2007년 12월말 발표 자료, 네덜란드 통계청 (CBS)

2. 주요 산업 동향

가. 네덜란드 산업동향 개요

네덜란드는 유통, 도소매 및 운송 등의 서비스 산업이 GDP 생산의 61.9%, 고용에서 62.5%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잘 발달되어 있고, 원자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만들거나 완제품을 수입 하여 재수출하는 가공/중계무역이 발달되어 해외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다국적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과의 합병을 통한 기업의 집중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선도산업 분야들은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 의하여 대변되고 있는데 SHELL, AKZO NOBEL 그리고 DSM등이 화학산업분야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 유니레버는 음식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전세계 가전시장의 중요 거인 중의 하나인 필립스 또한 네덜란드 회사이며 또한 세계적인 유통기업인 A-Hold 역시 네덜란드기업이다. 이러한 대기업의 와중에서 네덜란드는 또한 소기업의 강세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기업 중 76% 이상이 1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경제의 주춧돌을 이루고 있는 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과 축적된 기술 인프라가 적용되는 산업들이다. 필립스의 경우는 전체 직원의 15%가 R&D분야에 종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사들과 연구소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힘입어 네덜란드는 생명 과학, 정보산업, 그리고 소재산업 및 전자산업과 같은 분야에서 굳건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19세기말부터 농업공황의 일대 시련기를 거쳐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오늘날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농업, 축산, 낙농업의 경우 네덜란드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협소한 경지면적이나 집약농업이 행해진 관계로 감자 등의 생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소 1두당 우유생산량, 달걀, 연유, 치즈 등의 수출량도 세계 최고이다. 농림업은 고도로 기계화되어 있으며 국내총생산의 약 4%, 노동력의 약 3.8%가 이 부분에 종사하고 있다.

네덜란드 노동인구 중 약 25%정도가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양질의 노동력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노동생산성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네덜란드의 양질의 노동력과 함께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이 화란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꼽을 수 있다.

한편, 국제화된 기업문화 또한 경제발전의 주요 원동력으로 평가 받고 있다. AKZONOBEL, PHILIPS, SHELL, HEINEKEN과 같은 회사들은 그들의 활동영역을 국내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국외에 많은 생산기지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많은 수의 네덜란드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의해 인수되고 있다. 현재 외국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만도 200,000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주요 산업동향

1) 자동차 부품산업

네덜란드 자동차 부품 시장은 약 40억 유로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세부 품목별로는 타이어가 21%로 전체 부품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액세서리 12%, 차체부품 및 액세서리 10%, 기어박스 5% 등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부품별 비중

Tyres	21%
Accessories	12%
Body Parts and accessories	10%
Gear boxes	5%
Parts for other lifting, handling, and loading machinery	5%
Other parts for mobile equipment	5%
Others	36%

자료원: CBI

EU 자동차 부품시장 중 애프터 마켓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OEM 마켓은 약 80%에 달한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우, 자동차 생산설비가 거의 전무하여 애프터 마켓의 비중이 타 EU 국가에 매우 높은 점이 특징이다.

네덜란드 차량보유 대수 및 신차 등록 대수

(단위:
천대)

년도	판매대수
2002	511
2003	488
2004	483
2005	465
2006	484

- 차량 내구연한 증가에 따른 A/S 부품 수요 증가
 - 네덜란드의 신차 등록대수는 99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네덜란드 소비자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 차량 교체시기를 미루고 있는 것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주된 요인은 차량의 내구연한 증가에 있다.
- 2002년 기준 네덜란드 차량의 평균 수명은 6.5년이었으나, 신차 판매량의 감소로 인해 2006년 말에는 약 7년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이처럼 과거에 비해 차량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유지보수를 위한 A/S 부품수요가 OEM 부품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 나고 있다. Rai Autovak 등 자동차 관련 기관들은 향후 5년간 애프터 마켓이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네덜란드 주요 A/S 부품 수입규모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유로)

부품명(HS Code)	2004		2005		2006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차체 및 파트(870790)	613,473	11.4	672,360	9.6	776,302	15.5
범퍼(870810)	82,310	-21.0	93,601	13.7	71,806	-23.3
안전벨트(870821)	5,487	-3.5	4,524	-17.5	10,007	121.2
기어박스(870840)	311,396	-0.4	317,900	2.1	396,173	24.6
휠(870870)	119,460	9.4	142,908	19.6	191,271	33.8
머플러 등(870892)	72,961	-9.0	106,710	46.3	86,295	-19.1
클러치(870893)	61,524	11.9	67,913	10.4	72,512	6.8
타이어(401110)	810,100	19.9	869,849	7.4	948,808	9.1

- Distribution Channel
 - 네덜란드의 신차 판매 시스템은 네덜란드 딜러협회(Netherlands Dealer Association/BOVAG-NDA) 관할하의 3,300여개 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차량 브랜드별로 독립된 영역을 확보하여 영업중이며, 이 같은 프랜차이즈 딜러시스템에 가입된 딜러들은 대부분 10명 내외의 종업원을 두고 있으나 과당경쟁으로 인해 신차판매가 원활하지 않아 이들 대부분은 판매차량에 대한 보수유지 영업을 동시에 영위하면서 딜러망을 운영하고 있다.
 - 이 밖에 수천 개의 종업원 5명 이하의 Independent garages도 차량 판매 및 보수유지 영업을 하고 있는 데, 이들은 특정차량 메이커에 구속되지 않고 많은 종류의 차량을 동시에 취급하고 있으나 주로 중고차량이나 노후차량을 취급하고 있다.
 - 이들 Independent garage들이 A/S용 부품의 주요 수요자라고 볼 수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의 직수출 물량도 대부분 이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 국내 수출기업은 기본적으로 모든 유통채널들을 통해 수출할 수 있으나, 실제 딜러십의 장벽이나 수입물량이 너무 작아서 직수출에 애로가 있다. 따라서 Independent garages에 부품을 공급하는 수입 및 도매상을 접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 현재 네덜란드의 자동차 부품 도매업계는 최근 2년간 전체 도매상의 14%에 달하는 200개사가 다른 업체에 합병되는 등 큰 폭의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 네덜란드 자동차 부품 도매업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거래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도매상의 수입규모, 타겟 시장 등을 주의 깊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유럽 물류기지 구축
 - OEM 부품 시장의 경우, 애프터 마켓과는 달리 물류가 새로운 경쟁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유럽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재고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just in time' 딜리버리를 요구하고 있다.
 - 자동차 제조사들의 즉각 딜리버리 요구는 국내 부품업체에게는 위기이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후발 경쟁국과의 가격경쟁과 유럽 부품 공급업체들과의 딜리버리 경쟁의 틈새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유럽에 물류기지를 구축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 물류기지의 입지로서는 로테르담이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으며, 기타 안트워프, 함부르크 등이 선호된다. 로테르담 등지에 물류기지를 운영할 경우, 1~3일 내에 유럽 주요국으로 배송 가능하기 때문에 유럽 기업들과의 동등한 조건에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 등 후발 경쟁국과는 딜리버리 단축 등 서비스 면에서 차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의류산업

- 네덜란드 의류시장은 2003년도 6년 만에 감소세를 기록한 이후 2004년 회복세로 반전되었으나 2005년부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네덜란드 의류시장은 '90년대 중반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5%대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루었으나 2003년 2002년 대비 0.6% 감소한 120백만유로(겉옷 및 속옷 등 의류 전체)의 시장규모를 기록했다. 하지만 2004년 및 2005년의 경우 네덜란드 경제의 활성화와 소비지출의 증가세에 기인하여 의류소비도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의류산업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네덜란드 의류협회(MODINT; Association of the Dutch clothing and knitwear industries)는 2006년도 네덜란드 의류시장의 규모는 2005년과 대비 약간 상승한 수준인 0.5%의 성장세를 보여 약 140백만 유로를 기록했으며 2007년도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인 0.4-0.6%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중저가 제품이 시장의 주류 형성
 - 네덜란드 의류시장은 고급품보다는 중저가 제품이 보다 선호되는 시장임. 검소하기로 유명한 네덜란드 소비자들에게 있어 의류는 가계지출중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고급브랜드의 의류보다는 중저가의류가 선호되고 있다.
- 수입이 소비량의 대부분 차지
 - 네덜란드도 여타 EU국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시장수요를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소비되고 있는 의류의 약 95% 정도는 수입품이며 나머지는 중국, 헝가리, 우크라이나 등 저임금 국가와의 역외가공무역형태(OPT)로 생산, 시장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네덜란드의 경우 니트류의 경우 생산기업이 거의 전무한 관계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네덜란드 니트류 수입동향은 2005년 총 660,878천 유로를 기록 2004년 675,357천 유로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증가세로 반전, 4.6% 증가한 691,223천유로의 수입을 기록했다.
 - 네덜란드의 니트류 주요 수입대상국은 독일, 방글라데시, 터키, 홍콩, 중국, 이탈리아 등이 나 독일, 이탈리아로부터의 수입은 브랜드제품 또는 하는 경우이며 공급상을 통해 수입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중국, 터키 등 저임금국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 특징적인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2003년 31,993천유로를 기록했으나 2004년

42,542천 유로로 2005년 쿼터페이 이후 증가폭은 급속히 확대되어 2005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23,524천유로로 2004년 대비 190% 이상 증가되었다. 하지만 2006년 중국산 제품의 EU의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인해 수입폭은 감소세로 반전 2006년 대 중국 니트류 수입규모는 전년 동기비 14.7% 감소한 105,352천유로를 기록하였다.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04년 20,443천유로에서 2005년 10,818천유로로 46.9% 감소했으나 2006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감소의 상대적 혜택으로 인해 2006년은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한 12,268천유로를 기록했다.

네덜란드 니트류 수입현황

(단위: 천유로)

2005년			2006년		
순위	국 가	수입액	순위	국 가	수입액
1	중 국	123,524	1	독 일	116,653
2	독 일	106,155	2	중 국	105,352
3	방글라데쉬	75,163	3	방글라데쉬	89,508
4	터 키	61,757	4	홍 콩	69,414
5	이탈리아	44,639	5	터 키	52,133
6	홍 콩	42,389	6	인도네시아	42,142
7	인도네시아	28,023	7	이탈리아	35,750
8	벨기에	27,817	8	벨기에	24,098
9	덴마크	18,785	9	인 도	16,109
12	한 국	10,801	11	한 국	12,268
총 수입액		660.878	총 수입액		691,223

HS codes: 6110 (Sweaters, Knit or Crocheted)

Source: World Trade Atlas

- 자켓류를 중심으로 여성의류 판매비중 높아
 - 네덜란드 의류시장의 특징은 전통적으로 여성의류의 판매비중이 여타 EU국가보다 높다. 여성의류의 경우 자켓류 및 니트의류를 중심으로 전체의류시장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지속적인 강우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자켓류 및 니트의류의 경우 필수적인 구매품목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
 - 네덜란드 의류협회에 따르면 2006년 겨울의 경우 2005년보다도 보다 온난한 날씨가 길어 자켓류 및 니트의류의 증가세가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금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전문의류 매장에서 주로 구매
 - 네덜란드 의류 관련 판매장의 경우 약 13,000여 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네덜란드 소비자들은 브랜드에 대한 인식은 크게 높지는 않으나 의류를 구입할 경우 백화점, 할인매점 보다는 의류전문매장을 선호하고 있다. 네덜란드 내에서 의류는 전문 매장에서 판매가 68%로 일반매장보다 2배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비중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 네덜란드의 의류매장은 대도시인 암스테르담, 헤이그, 유트레히트 등 서부지역이 약 60% 이상이 집중되고 있으며 아르헨 등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 화학산업

지구온난화를 방지를 목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기로 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네덜란드 화학산업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네덜란드 화학산업은 시장규모 340억 유로, 고용의 10%, 생산의 15%, 수출의 25%, R&D투자의 30%에 달하는 최대 산업분야 하나로서 2005년 기준 네덜란드 화학 산업의 이익률은 약 9%대로 산업평균 이익률 6.3%보다 약 1.5배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네덜란드 화학산업이 대표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정부 및 관련업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 및 관련업계는 네덜란드 화학산업 발전모델을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구축’이라는 대명제로 정의하고 중장기적인 성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EU내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다.

○ 네덜란드 산업분야 중 화학산업이 가장 혁신적

- 네덜란드 조사전문기관인 EIM(Research Bureau EIM)은 58개 분야의 네덜란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보고서(2005년 8월말)를 통해 네덜란드 내에서 가장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분야는 화학산업 부문으로 10점 만점에 8.21점을 획득했으며 ICT 분야가 8.09점, 기계산업이 7.79점 등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축산분야 및 소매판매업 분야가 각각 5.10점과 4.68점을 획득하여 네덜란드 중소기업 분야 중 가장 비혁신적인 산업분야인 것으로 동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
- EIM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화학산업분야 중 특히 페인트, 접착제, 향수, 고무밴드 등이 가장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라고 분석했다. 이는 90년대 중반 이후 상기 분야들이 중국, 동남아 국가 등 저임금 국가들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세계시장에 등장하면서 이미 사양화 되는 시점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기업들의 전략이 오히려 경쟁력을 갖게 하는 데 일조하였다는 것이다.
- 네덜란드 화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기술지향적으로 회사의 시스템을 변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설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이와 동시에 새로운 물류시스템과 서비스 도입, 친환경적인 상품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 최고수준의 중소기업들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 또한 시장의 협소함을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의 종사기업들이 매출규모의 80% 이상을 수출에 집중함으로써 내수산업의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연간 1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해 왔다는 점이 특징적인 사항으로 들고 있다.

○ 환경친화적 민-관 협력프로그램 ‘The Responsible Care Program’

- 1993년 네덜란드 정부 및 화학산업 관련업계는 환경문제가 2000년대에 더욱 핵심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될 것을 감지하여 정부와 기업군과의 전격적인 협의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화학산업 발전프로그램인 ‘The Responsible Care Program’을 개발하게 되었다.
- 동 프로그램은 네덜란드의 중장기적인 화학산업의 경쟁력이 ‘환경친화’에 있다고 공동 인식에 기초하여 화학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매 4년마다 기업의 ‘환경 친화적 정책 계획서’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매년 말 수행결과를 보고, 평가 받게 됨으로써 산업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The Responsible Care Program’을 약 10년간 운영한 결과 네덜란드 화학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황가스(SO₂), 산화질소(NO_x),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암모니아(NH₃) 농도가 약 50% 이상 감소되어 2010년까지 목표한 달성가능 수치의 90%까지 근접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도 경쟁력 확보의 기반
 - 화학산업에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환경 친화적 프로그램의 수행과 더불어 기업이익 증대를 위한 자구적인 구조조정 노력 및 혁신적인 경영도입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였다.
 - 네덜란드 화학산업 관련기업들은 90년대 후반 전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평균 30%에 이르는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저비용, 최대효용의 가치를 노사간 이견 없는 타협으로 이끌어 냈다. 또한 생산/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비, 포트폴리오 경영방식채택 등 혁신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었다.
- 고객 마진보장으로 지속적인 거래 유지
 -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화학산업 관련 기업들은 철저한 고객관리와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강화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기울였다.
 - 우선 고객관리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바이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따라 절감된 비용을 바이어들의 마진확대로 보장해 줌으로써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왔다.
 - 또한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소품종, 특정품목의 오더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동종 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보 및 관련기술의 교환 등 전반적인 네덜란드 화학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네덜란드 화학산업 성장산업으로 확고한 위치 굳힐 듯
 - 네덜란드 화학산업은 불황기 속에서부터 운영되어온 환경친화적 민관협력프로그램이 금년 도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더더욱 빛을 발휘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또한 이와 더불어 기업간 전략적 제휴 강화, 고객에 대한 유연한 대응 등 기업들의 자구적인 발전방안들이 지난해부터 회복되고 있는 경기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네덜란드 화학산업은 상기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네덜란드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주력산업으로 확고한 위치를 굳힐 것으로 전망된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네덜란드는 EU회원국으로 개별적으로 다른 나라와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 EU 회원국: 총 27 개국
 -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그리스 (15 개국 기존 회원국)
 - 헝가리,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10 개국 - 2004 년 가입국)
 - 불가리아, 루마니아 (2 개국 - 2007 년 가입국)

□ 참고: EU의 자유무역협정 정책 및 체결현황

가. 지역 통상협정체결

- EU 의 기본적 통상정책방향은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시장을 개방하고 유럽산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시장을 확보하는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EU 의 통상부문 중점 추진과제는 자유무역 및 시장개방, 해외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DDA 협상에서 균형된 결과 도출, MERCOSUR, GCC, ASEAN 등 지역협력체와의 FTA 추진, 지적권, 투자, 정부조달, 시장접근 개선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FTA 추진 관련, EU 는 MERCOSUR, GCC, ASEAN 등과 같은 지역협력체와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음
-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WTO 에 가입할 경우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예정이며 조달 시장 개방 관련 EU 기업에 조달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EU 시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임

나. 지역 통상협정체결

- GATT Article XXIV 하에 통보된 협정(자유무역지역 및 상품 관세동맹)
 - EU 연합(25)
 - 관세 동맹: 안도라, 터키
 - FTA: 유럽: Faroe 아일랜드(덴마크), 스위스(리히텐슈타인 포함).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07.1.1 일부터 EU 가입)
지중해 : 알제리아,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팔레스타인, 시리아, 튀니지, 칠레, 멕시코, 남아연방, 일부 OCT/PTOM II
- GATT Article XXIV 하에 통보된 협정(자유무역지역 및 서비스 관세동맹)
 - EU 연합(25),
 - 여타 유럽: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2007년 1월 1일 일부터 EU 에 가입됨)
 - 여타 지역: 칠레, 멕시코
- WTO 에 통보되지 않은 협정(상품교역)
 - 산나리노
- 기타(EU 가 WTO 에게 포기권 요청한 협정으로 특혜무역협정임)
 - ACP
- 2007년 5월 7일 일부터 한-EU FTA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2008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음.

나. 양자간 협정 체결을 포함한 양자간 협상(협상 개시 및 협상 중 포함)

- 협상국
 - ACP/EPAs, 알바니아,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백러시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캐나다, 중국, 이집트,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이란, 이라크, 요르단, 카자흐스탄, 레바논, MERCOSUR, 몰도바, 몬테네그로, 모로코, 팔레스타인, 러시아, 세르비아, 시리아, 튀니지, 우쿠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교역 규모

네덜란드의 교역 규모는 2006년말 기준 7,000억불에 달하고 있다. 수출은 3,693억불, 수입은 3,320억불로 373억불의 무역흑자 구조를 보이고 있다. 2007년 1-6월 기준으로는 수출, 1,954억불, 수입 1,749억불을 기록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무역수지

(단위: 백만 유로)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1-6)
수출	261,681	287,337	326,641	369,250	195,416
수입	234,004	256,990	292,439	331,979	174,867
무역수지	27,677	30,347	34,202	37,271	20,549

나. 교역 주요 국가

네덜란드는 EU 회원국으로 교역의 약 65% 정도가 회원국간 역내교역으로 총당하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 EU 회원국이 확대되면서 체크, 헝가리 등 동구권과의 교역이 급증하여 역내 교역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7년 1-6월 기준 네덜란드의 최대 교역국가는 독일로 전체교역규모의 약 21%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국가별 수출

(단위: 백만 유로)

순위	국별	2004	2005	2006	2007(1-6)
1	독일	71,499	80,398	92,802	46,914
2	벨기에	34,320	42,169	42,045	25,255
3	영국	28,927	29,575	32,512	17,461
4	프랑스	28,102	30,399	31,017	16,223
5	이태리	17,010	18,173	18,290	9,873
6	미국	12,017	13,702	16,255	8,641
7	스페인	11,231	13,114	13,122	7,024
8	스웨덴	5,642	6,429	6,631	3,458
9	폴란드	5,786	5,740	6,641	3,452
10	러시아	3,364	4,539	5,537	3,019

네덜란드의 국가별 수입

(단위: 백만 유로)

순위	국별	2004	2005	2006	2007(1-6)
1	독일	45,830	48,389	56,287	30,950
2	중국	18,985	25,721	30,926	16,971
3	벨기에	24,977	27,202	31,411	16,417
4	미국	20,272	22,021	25,268	13,165
5	영국	16,277	16,857	19,309	9,905
6	프랑스	12,787	13,617	15,122	7,880
7	러시아	6,772	12,294	15,327	7,194
8	일본	9,382	9,342	10,098	5,579
9	이태리	6,088	6,711	7,280	3,901
10	노르웨이	5,786	5,740	6,641	3,568

다. 교역 주요 품목

네덜란드의 경우 교역량의 상당부분이 중계무역형태로 수입 후 다시 EU 각국으로 수출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수출품목과 수입품목이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2006년 기준 네덜란드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료처리기기, 석유 및 역청류, 사무기기 부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원유, 자동차료처리기기, 사무용기기 및 부품, 석유 및 역청류 등이다.

네덜란드의 품목별 수출

(단위: 백만유로)

순위	품목별	2004	2005	2006
1	석유 및 역청유	13,492	19,606	23,926
2	자동차료처리기기	19,658	22,356	22,006
3	사무용기기 부품	7,683	11,743	13,736
4	원유	2,932	5,868	9,103
5	의약품	6,293	6,680	7,438
6	전자직접회로	9,038	8,346	6,444
7	의료기기	3,273	3,906	4,079
8	음성, 영상재생기기	3,473	5,199	3,953
9	알미늄	2,300	2,504	3,606
10	탄화수소	2,430	2,716	3,410

네덜란드의 품목별 수입

(단위: 백만유로)

순위	품목별	2004	2005	2006
1	원유	16,261	26,146	31,851
2	자동차처리기기	19,700	21,960	23,156
3	사무용기기부품	8,263	10,726	13,391
4	석유 및 역청유	6,490	9,488	12,419
5	승용차	8,641	8,212	7,832
6	의약품	6,294	6,972	7,313
7	가스	2,039	3,208	5,753
8	전자직접회로	7,565	7,203	4,670
9	음성·영상재생기기	4,362	6,660	3,974
10	의료기기	2,767	3,637	3,843

자료원: World Trade Atlas (2007)

품목구분: HS 4단위.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교역 규모

독일,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우리나라의 대EU 4번째 수출 대상국인 네덜란드에 대해 우리나라는 2006년 네덜란드에 36.1억 불을 수출함으로써 전년대비 1.0% 감소했다. 수입은 30.3억 불로 전년 동기대비 9.6% 증가했다. 2007년에는 양국의 교역규모가 더욱 증가, 우리의 대 네덜란드 수출은 1-11월 누계기준 전년동기비 23.4% 증가한 4,034백만불, 수입은 23.6% 증가한 3,328백만불을 기록하였다.

한-네 수출입현황

(단위: 백만 불, %)

구분	2004		2005		2006		2007(1-11)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3,007	18.6	3,647	21.3	3,609	-1.0	4,034	23.4
수입	1,729	26.0	2,760	59.6	3,026	9.6	3,328	23.6
수지	1,278	10.8	887	-30.6	584	-34.2	706	-

자료원: KOTIS(2007.10)

나. 교역 주요 품목 및 특징

한국과 네덜란드는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어 교역확대 여지가 매우 크다. 한국이 전자 제품 및 자동차, 유기화학품 등의 제품 생산에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마케팅 활동은 다소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는 높은 인건비로 인해 최근 들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대신 마케팅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나가고 있다. 한-네덜란드간 상호 보완적인 관계의 대표적인 사례는 LG전자와 필립스의 지속적인 긴밀한 협력 관계이며, 2003년 LG필립스의 파주 공장 설립 추진은 가장 최근의 예가 될 것이다. 또한, 네덜란드는 마케팅의 지원이 가능해 네덜란드 중개상을 이용한 유기 화학품 및 중고 기계의 대 동구권 진출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수출 호조 품목으로는 경유, 건설 중장비, 모니터, 휴대용 전화기, 칼라TV, 건설 중장비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한국이 네덜란드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은 반도체 생산 관련 기자재, 유기 화학품, 의료용 기기 등 낙농품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대 네덜란드 주요 수출품목 및 금액

(단위: 천 불, %)

순위	품목명	2006		2007(1-11)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총계	3,609,377	-1.0	4,034,243	23.4
1	경유	407,158	-9.8	659,622	76.8
2	건설중장비	417,563	51.7	563,506	48.6
3	무선전화기	341,568	-4.2	404,043	26.2
4	승용차	577,256	21.4	349,687	-33.1
5	윤활유	112,304	12.5	204,296	129.7
6	타이어	121,705	-55.3	117,794	8.8
7	무선통신기기부품	36,178	57.0	104,897	241.6
8	자동차부품	90,424	-26.9	101,386	25.3
9	컴퓨터부품	111,039	-26.9	98,416	-2.8
10	프린터	65,778	39.6	92,997	51.7

한국의 대 네덜란드 주요 수입품목 및 금액

(단위: 천 불, %)

순위	품목명	2006		2007(1-11)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총계	3,025,709	9.6	3,328,224	23.6
1	반도체제조용장비	1,366,708	21.8	1,309,357	10.8
2	고철	181,363	177.0	429,639	174.9
3	나프타	0	-	90,649	-
4	펌프	12,194	-25.6	62,601	436.2
5	낙농품	37,857	5.4	59,260	78.4
6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46,939	-9.0	56,339	26.5
7	합성수지	50,465	5.5	49,363	4.7
8	가축육류	39,880	15.1	46,775	31.2
9	화물자동차	0	-	46,578	-
10	니켈 과 및 스크랩	39,459	43.9	44,052	24.5

자료원: KOTIS (2007.12)/주: 품목구분 MTI 4단위

3. 수입규제제도

네덜란드의 대외통상정책은 전적으로 EU의 통일지침에 따르며,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수입장벽은 없다. 유럽의 물류허브로서 네덜란드는 EU 및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는 재수출로 연결되어 수입, 수출 모두를 장려하고 있으며, 수출입은 년평균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어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수입관리는 국가별 관리와 품목별 관리로 구분된다. EU회원국으로부터 수입에 대해서는 자유화되어 있어 수입허가가 필요 없다. 육류, 과일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 농수산물 장관 허가: 농수산물 수입령이 정한 가축, 육류, 과일, 낙농제품
- 경제성 장관 허가: 공산품 수입령이 정한 석탄, 철강, 석유류 등
- 관계부처 장관 허가: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및 원산지 불명 제품

네덜란드 독자적인 수입 관리 및 규제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며, EU의 통일된 지침 및 규격, 관리와 수입쿼터 등을 운영하게 된다.

가. 수입 규제 제도

수입의 급격한 증가 또는 덤핑 등 불공정한 교역 행위로 인하여 EU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조사 결과 판단될 때 EU 당국은 산업 피해 구제 조치로서 EU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입규제 조치는 각 회원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독단적으로 취할 수 없고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 위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초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1) 반덤핑

수출국의 기업이 덤핑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규제조치이다.

EU집행위는 EU기업으로부터 한 일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산업을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덤핑 존재: 해당 수출국(제 3 역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가 자국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 EU 산업에 피해 존재: 덤핑 수입으로 EU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EU산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EU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의 전반적 이익: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반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EU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 상품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 EU집행위는 덤핑제소 접수일로부터 45일 내에 사전조사,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2) 반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관세

보조금에 대한 국제적 규율은 보조금과 상계 조치에 대한 WTO의 협정에 의해 상당히 강화되었다.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EU 역외국 정부의 수출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에만 적용되고 해당 제품에 상계 관세가 부과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 수출보조금 또는 한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 EU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수출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연합의 전반적 이익: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 반덤핑 조치와 마찬가지로 집행위가 조사하고 잠정 조치를 취하나 최종 조치는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조치와 유사하다.

3) 세이프가드

EU 수입제도는 자유 수입을 일반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하는데 예외적 경우란 급작스러운 대폭의 수입 증가의 경우로 EU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를 의미한다. EU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하고 case-by-case 형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의 세이프 가드 협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이프 가드 조치로는 수입쿼터로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조치가 있는데 감시(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선스가 요구된다. 현재 감시제도는 일부 국가의 철강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나. 수입 쿼터 제도

EU는 원칙적으로 수입 쿼터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WTO 협정 내에서 2004년까지 일부 섬유제품에 대해 쿼터 제도가 적용되었으나 2005년 1.1일부터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되었다. 그러나 섬유쿼터제도 폐지 이후 중국산 섬유제품과 신발이 대량 수입되어 EU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업계 및 EU 회원국 정부의 압력으로 EU당국은 중국산 일부 섬유 제품과 신발류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 가드)를 취하여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 있는 한편 신발류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 관세제도

네덜란드는 EU회원국으로서 EU 관세제도를 따른다. 네덜란드는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가입국 뿐 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쌍무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EU연합의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민감성에 따라 제품의 관세율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EU산업이 완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하나 EU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자재 또는 반제품 등에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한다.

- 관세율: 관세는 EU가 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 EU 관세율 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 (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 (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 (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페인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을 설정 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증가세를 부과하는 선택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부과금 (Import Levy)을 부여한다.

- EU 관세율은 EU 집행위 관세(CUSTOM) 사이트(TARIC)에서 참조할 수 있음:
 - 해당 인터넷 사이트 주소: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en/tarhom.htm

라. 교역 관련 주요법규

네덜란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EU의 통상법규를 따른다. EU통상정책의 실제 수단은 공동 관세, 산업피해구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더불어 제 3국의 무역장벽 및 시장접근 정도에 관한 조사, 분석을 기초로 대외통상교섭과 협정체결 등인데 다자 또는 양자간 협의를 통해 통상 조치의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일방적인 조치를 통해 이행하기도 한다.

1)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은 기타 통상조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 제한 조치, 원산지 표기 요건 및 여타 차별적인 수량 제한 또는 관세쿼터 등과 같은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된다.

- EU 원산지 규정의 기초법: 1992년 10월 12일 자 이사회 규정 2913/92

2) EU 공동관세

매년 EU 집행위는 EU 공동 관세율을 관보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EU 관세율은 EU 집행위 관세부서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 TARIC: http://ec.europa.eu/comm/taxation_customs/dds/en/tarhome.htm

3) 수출입 관련 규정

EU 수입규정(Regulation 3285/94)은 EU로 수입되는 물품에 공동 적용되는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수량제한을 금지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제한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한다. 단, 수입상품이 EU산업에 심각한 손실을 끼치는 것을 예방 또는 치유하는 조치로 절차 규정에 의거,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을 취한다. 수출도 마찬가지로 수출규정(Regulation 2063/69)에 의거, 개인과 기업은 특별한 제한 없이 석유와 가스, 무기, 위험 폐기물을 제외한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을 수량제한 없이 제 3국에 수출할 수 있다. 단, 수출로 인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이 결여될 위험성이 있거나 회원국의 공익상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상황에서 집행위는 회원국의 요청이나 독자적인 결정으로 수출 허가제도를 취할 수 있다.

4) 통상장벽 규정

통상장벽 해소를 위해 별도의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주로 WTO제소 또는 WTO 협정에 따른 보복조치(양허 철회, 중지, 관세인상, 수량규제 도입 등)를 취한다.

5) 산업 피해 구제 조치

산업 피해 구제 조치는 수입의 급격한 증가 또는 불공정한 교역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될 때 EU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로서 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등을 의미한다. 상기와 같은 통상법규 이외에도 환경분야의 각종 규정과 산업분야에 있어서 각종 공업 규격 과 기술표준 인증제도, 안전규정(CE마킹), 상품 관련 제조자의 책임제 등이 네덜란드를 비롯 하여 EU 시장을 접근하는데 기술장벽이 되고 있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2007년 12월 10일 기준 EU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은 5개 품목이며, 그외 상계 관세 규제 품목은 1건으로 총 6건이 수입 규제 조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철강제 관련결구류는 반덤핑 재심 조사 중이다.

가. 반덤핑 규제품목

- 폴리에스터 합성단성유
 - 반덤핑 관세율: 휴비스 5.7%, 새한 10.6%, 동우, 이스트영, 에스탈, 금풍, 건백, 삼흥 6%. 기타 10.6%(2010.3월 종료예정)
- PET 칩(점착성 173mg/l 이상의 PET)
 - 반덤핑 관세율: 호남석유화학 101.4 유로/t, 동국무역 및 기타 148.3 유로/t (대한화성, KP 케미컬, SK 케미컬 무형의)
- 양문형 냉장고
 - 반덤핑 관세율: 삼성 0%, 대우 3.4%, LG 12.2%, 기타 12.2%
- 철강제관 연결구류
 - 반덤핑 관세율: 44%(2007.8월 재심 개시)
- 실리콘 메탈('중국산의 우회 수출에 적용되는 조치로 우회덤핑이 아닌 경우 적정 서류를 EU 측에 제출키로 함' 포함)
 - 반덤핑 관세율: 49%

나. 상계관세 규제

- D-RAM: 2006년 4.13일부터 상계 관세율이 34.8%에서 32.9% 하향 조정(삼성전자는 상계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

(자료원: European Commission, 2007년 12월)

5. 관세제도

가. 개황

네덜란드는 EU회원국으로서 EU 관세제도를 따른다. 네덜란드는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가입국 뿐 만 아니라 비 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쌍무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EU연합의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민감성에 따라 제품의 관세율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EU산업을 완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하나 EU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자재 또는 반제품 등에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를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면제한다.

- 관세율: 관세는 EU가 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 EU 관세율 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 (Harmonized-System)분류 체계를 기초로 EU 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 (6 단위까 지는 HS code 와 동일)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 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 금등 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 (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 (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을 설정 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증가세를 부과하는 선택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부과금 (Import Levy)을 부여한다.

- EU 관세율은 EU 집행위 관세(CUSTOM) 사이트(TARIC)에서 참조할 수 있다.
 - 해당 인터넷 사이트 주소: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en/tarhom.htm

나.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1) 상품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서류에 상품분류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네덜란드에서는 모든 EU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 리의 EU상품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 히 분류 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 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 한 상품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2)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네덜란드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3) 관세부과가액

상품의 실질 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금액과는 별도로 관세부과 가액 산정시 반영되는 요소 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한 것 들이다.

통관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을 회원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19%가 적용됨)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등)에 대해서는 특별세 (excise)가 부과된다(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6. 주요인증제도

가. 네덜란드 검사제도

네덜란드시장은 EU통일인증마크인 CE Marking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나, 네덜란드 자체적인 인증마크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KEMA-KEUR'라는 인증으로서, 수출입 제품 등에 있어 강제 사항은 아니나, 네덜란드 내에서는 94%가 인지할 정도로 알려져 있다. 동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와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 KEMA-KEUR 인증제도

동 인증은 네덜란드 KEMA가 인증하는 것으로 주로 전기제품의 '안전(safety)'상태를 검사하는 인증이다. 1924년도에 국제 규정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안전검사를 통과한 완제품 및 부분품에 인증 한다.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덴마크에서도 신청가능하며, KEMA는 세계 20 개국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EU의 CE마크 인증은 시장진출을 위한 강제 인증이나 동 인증은 부가적인 것이다. 그러나 수 천종의 제품은 동 인증도 취득한 바 있다.동 인증의 취득에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 유로에서 수만 유로가 소요되기도 하며, 인증취득 후에는 매 1년마다 해당제품 생산공장 및 해당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 정기검사에도 수천 유로가 소요된다.

2) CE마킹 제도

27개 EU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CE 마킹 대상품목 및 규정 지침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90/396/E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73/23/EEC
건설자재(Construction Products)	89/106/EEC
폭발용 기기 및 보호제품(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 for used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4/9/EC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	92/42/EEC
가전 냉장·냉동고(Household Refrigerators & Freezers)	96/57/EC(에너지효율지침)
승강기(Lift)	95/16/EC
기계(Machinery)	98/37/EC
선박(Marine Equipment)	96/98/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90/384/EEC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 (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87/404/EEC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장난감(Toys)	88/378/EEC
Trans-European Conventional Rail System	96/48/EC, 2001/16/EC

-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85/374/eec(1999/34/EEC 수정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제품 안전
 -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 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규격
 -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는 라벨로 현재까지 24개 품목 군에 대하여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4개 품목군에 대하여 기준 제정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32개 품목 군에 대하여 EU 집행위와 관련 업계 단체들이 에코라벨 기준 제정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 기준 기 제정 품목
 - 세제: 일반 청소세제, 식기세척기 세제, 설거지세제, 세탁용 세제
 - 기기: 식기세척기, 전구, 휴대용 컴퓨터, PC, TV, 냉동고, 진공청소기, 세탁기
 - 종이제품: 복사용지, 화장지
 - 가정, 정원 용품: 침대메트레스, hard floor coverings, 실내용 페인트 및 안료, 토양 개선제, 가정용 섬유제품
 - 의류: 신발, 섬유제품
 - 관광: 캠프장 및 서비스, 관광객 편의 시설 서비스
 - 유탄유: 유탄유
- 기준 제정 추진 품목
 - heat pump, 비누와 샴푸, 프린트용지, 가구
- 제정 가능성 검토 품목
 - 문구류, 벽지, 쓰레기봉투, 소핑백, 필기도구, 전화, 복사기, 소형 가정용 전기기기, 패션 액세서리, 장갑, 가죽제품, 스포츠 장비, 완구 및 게임, 포장지, DIY 제품, 에어컨 디선투, 난방기기, 물 끓이는 시스템, 절연기, 건축부분품, 건축서비스, 소매서비스, 건조기, 금융서비스, 배달서비스, 자동차수리서비스, 자동차, 부속용품, 위생용품 등

4) 에너지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세척기, 램프, 전기 오븐, 에어컨 등이다.

- GEEA(Group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
 -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국들이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제품 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포럼이며 GEEA 규격에 적합하는 제품은 GEEA의 에너지라벨을 사용할 수 있음.
 - 대상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19품목)

나. 네덜란드 검사 및 인증 관련기관

- KEMA Corporate
 - P.O.Box 9035, 6800 ET Arnhem, The Netherlands
 - Tel: +31 (0)26 356 9111
 - Fax: +31 (0)26 389 2477
 - Homepage: www.kema.com
 - Remarks: KEMA-KEUR 인증기관
- Dutch Standardization Institute (NEN)
 - P.O.Box 5059, 2600 GB Delft, The Netherlands
 - Tel: +31 (0)15 269 0390
 - Fax: +31 (0)15 269 0190
 - Email: info@nen.nl
 - Homepage: www.kema.com
 - Remarks: 네덜란드 국가 표준원으로서 네덜란드 및 EU 표준에 관한 정보 제공

7. 지적재산권

가. 특허권

네덜란드 특허법(Rijsoctrooiwet 1995)은 1995년 4월1일자로 발효되었으며, 특허는 산업 재산사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Rijswijk 소재 Bureau voor de Industriële Eigendom).

네덜란드의 특허법은 장기보호와 단기보호로 나누어지며, 장기보호는 광범위한 조사를 거친 후에 이루어지는데 20년간 보호되며, 단기보호는 6년간 보호된다. 특허 요건 중의 하나인 참신성(novelty)에 관한 조사를 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허는 제3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에 필요하다거나, 특허부여 후 3년 이내에 적절히 사용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 출원자에게 라이선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후 특허출원자가 선 특허출원자의 원천기술에 기반하여 개발되었으나, 중요한 신기술일 경우 예는 라이선싱을 부여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파리협약(1975), 유럽특허협약(1973), 특허협력협정(1970), 스트라스부르그협정(1963)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럽공동체 특허협약에도 1989년도에 참가하였다.

유럽공동체 특허는 원헌 또는 하부기관이 있는 Rijswijk에서 등록할 수 있다.

- European Patent Office
 - Add: Patentlaan 2, 2280 HV Rijswijk
 - Tel: +31(0)70-3402040
 - Fax: +31 (0)70-3403016
 - Homepage: www.european-patent-office.org/

나. 상표권

1) 상표권 제도 개요

1971년 베네룩스 3국은 공동으로 상표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EU 지침에 따라, 상표규정에 맞춰 네덜란드 규정을 개정하였다(EC Directive 89/104, 1998년 12월 21일).

상표 보호기간은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다. 상표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헤이그에 있는 베네룩스 상표사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 The Benelux Trademarks Office
 - Add: Bordewijklaan 15, 2591 XR Den Haag
 - Tel: +31 (0)70-3491111 / Fax: +31 (0)70-3475708
 - Homepage: www.bmb-bbm.org/gb/pages/index.htm

마드리드협약 회원국으로 동 회원국에 일괄 상표등록을 할 경우, 이 시스템에 따라 상표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나, 특정 1개국에 받아들여지지 못할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서 무효의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상표등록방법 및 절차

개인, 회사, Organization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을 위해서는 "Formulier voor het Benelux-Depot van een merk", 소위 A-form이라고 불리는 서류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만약 등록하는 브랜드가 레터로 구성되어있는 경우는 브랜드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브랜드가 레터와 로고로 구성되어있는 경우에는 10개의 흑백사진을 동봉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서류 제출 이전에 등록할 브랜드가 중복되지 않았는가 하는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 준비조사를 위해서는 "Verzoek betreffende onderzoek naar eerdere inschrijving" 소위 B-form이라고 불리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The Benelux Trade Mark Office는 B-form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조사에 들어가며 이 과정에서 상표나 로고가 중복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등록 신청자나 기관은 Benelux Merken Bureau로부터 등록상표조사 결과를 통보 받으며, 만약 등록 상표나 로고가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신청자가 원할 경우 BMB은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이미 등록된 회사나 기관에 통보가 되며, 이미 등록된 회사나 기관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 상표나 로고가 상당히 유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등록 신청자가 등록을 추진할 경우, 이미 등록된 기관이나 회사, 또는 개인이 지적소유권을 발효하여 법적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등록 기간으로는 제출한 날짜로부터 약 6내지 7개월이 소요되나, 등록 신청자가 'Fast Search' (비용은 별도)를 택할 경우 6주 정도가 소요된다.

유효기간, 등록상표 개정 및 취소와 관련,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으로는 신청허가 날짜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등록상표 개정은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등록상표 취득 후 향후 3년간 또는 5년간 등록상표를 정기적으로 사용한 후더라도, 특별한 사유없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상표 등록권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상표가 사용되었으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 특별 케이스로 등록상표 취득에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등록상표권을 발효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와의 법적 인시비는 불가피하며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외국업체사 Benelux 3국의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네덜란드에 등록된 회사를 통하여 등록상표 취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기업은 자국에서 세계 각국의 상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다. 저작권

저작권(Copyright)은 특별한 절차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며, '독특하며, 개성이 포함됨 (original and personal character)'을 원칙으로 한다. 베른협약(1886), 국제저작권 협약(1952)에 가입되었으며, 1912년 네덜란드 법으로도 보호 받는다. (Auteurswet 1912)

서적, 영화 등의 보호기간은 사후 70년간이며, 음반은 50년이다.

라. 저작인접권

네덜란드는 1993년 저작인접권법(Wet op de naburige rechten)을 제정하여, 예술가, 프로듀서, 음반업자, 방송국 등은 저작권과 관련한(저작권을 이용한 새로운 편성 등) 인접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한다. 별도 등록은 불필요하며, 공연 등이 이루어진 후의 다음해 1월부터 50년간 보호된다.

8. 통관/운송

가. 통관절차 흐름도

EU회원국 밖에서 네덜란드로 유입되는 물품은 먼저 통관이 된 후 자유물품(free goods)이 된 후 EU내 판매가 가능하다. 통관은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통관된 후 바이어에게 직접 배송되는 경우와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물류창고로 옮겨진 후 통관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통관된 후 바이어에게 직접 배송되는 경우는 **세관 신고→제품의 EU국 안전, 건강, 경제 및 환경 요구조건 충족 여부 검사→수입관세 납부바이어로** 배송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물류창고를 경유하여 통관되는 경우는 **컨테이너 터미널→물류창고로 보세운송→창고 보관→세관신고 및 통관→제품의 EU국 안전, 건강, 경제 및 환경 요구조건 충족 여부 검사→수입관세 납부→바이어로** 배송 절차를 거친다.

나. 소요시간 및 제출서류

네덜란드는 유럽의 관문으로 세계에서 가장 손쉬운 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 통관관련 전량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로 통관절차를 수행하기 때문에 세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세관사이트를 접속 직접 수행 가능하다.

접속후 CN번호, Commercial Value, 제품명, 총량, (경우에 따라 관세 특혜 대상품목은 원산지증명 C/O) 번호 입력) 등을 입력시키면 즉시 통관된다.

EDI를 통해 통관후 네덜란드 세관이 다소 의심스러운 경우는 즉시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므로 Commercial Invoice, BL, Packing List는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다. 주요 항구

네덜란드의 주요 항구는 로테르담과 암스테르담 항구가 있으나,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의 대부분이 로테르담항을 경유하고 있다. 로테르담항만 물량은 암스테르담 물량의 10배 수준에 달한다.

라. 컨테이너 비용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소용되는 비용은 20" 컨테이너와 40"컨테이너 모두 같으며(서류를 기준으로 통관), 로테르담 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우 컨테이너 핸들링 비용 약 137.5유로(아시아 운송), Security Charge(ISPS) 15유로, 컨테이너 운송비 (컨테이너 터미널-로테르담 지역)는 약 200유로가 소요된다. (2007년 12월 기준)

마. 한국-주재국간 운송소요기간

한국-네덜란드 구간 해상운송 소요시간은 항해루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한국-로테르담 직행루트 24-27일, 한국-함부르크-로테르담 26-29일 정도가 소요된다.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네덜란드의 경제특성

- 유럽의 Little Giant
 - 협소한 국토 면적: EU 15 개국 중 12 위, 한반도의 1/5 수준
 - 세계 10 위권의 무역대국
 - 초대형 다국적기업 다수 소재: 세계 500 대 기업 중 16 개, 유럽 500 대 기업 중 33 개
- 유럽의 Gate
 - 유럽 수입물량의 60%, 수출물량의 30% 취급
 - 세계 최대 규모의 로테르담항 보유 (유럽 물동량의 40% 점유)
 - 유럽 시장의 Test Market: 시장 자유화로 국내외 기업간 경쟁 치열

- 유럽의 Garden
 - 연간 화훼류 수출 US\$45 억 (세계시장의 60% 공급)
 - 첨단기술개발로 화훼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성공
- 유럽의 경제발전 Model
 - Polder Model: 노사정 협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 열악한 국토환경하에서 물류, 화훼, 금융 등 틈새산업 육성, 성장

나. 투자 적격지로서의 네덜란드 비즈니스 환경

1) 지리적 중심지 및 양호한 접근성

- 반경 300 마일 (일일 생활권) 이내 1 억 7 천만 명의 인구와 유럽 주요 기업의 50% 소재
- 유럽의 3 대 시장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중간 지점에 위치
- 독일 루르공업 지대를 포함한 유럽 주요공업지역과 수로 및 육로로 연결
- 로테르담에서 주요 도시까지 거리 및 운송 수단별 소요시간

도 시 명	거 리(km)	도로/기차	운 하
오스트리아(비엔나)	1,180	2 일	10 일
프랑스(릴리)	825	1 일	2 일
독일(베를린)	710	2 일	8 일
헝가리(부다페스트)	1,435	3 일	11.5 일
폴란드 (바르샤바)	1,285	4 일	10.5 일
체코(프라하)	890	3 일	-
스위스(바젤)	670	2 일	4 일

자료원: Rotterdam Hinterland Connection, Port of Rotterdam

2) 풍부한 사회간접자본

□ 로테르담항(Port of Rotterdam)

- 62 년 이후 물동량면에서 부동의 세계 1 위로 자리매김. 처리능력은 연간 5 백만개의 컨테이너와 3 억 1 천만톤의 화물 처리. 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37%가 로테르담과 암스테르담항을 경유
- 로테르담항 항만정보시스템(INTIS): 로테르담항은 INTIS 라 불리우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터미널의 모든 정보를 전자문서 교환시스템(EDI)을 통해 처리. 세관망, 기업망, 공공망과 연계된 항만물류 종합 정보시스템

□ 암스테르담 스키펴(Schiphol) 국제공항

- 스키펴공항은 유럽 4 위의 공항으로, 전세계 240 개국 이상의 지역으로 취항함. 물류, 운송, 보관 및 출하시설이 우수하며, 해외 각 지역과의 화물연결 체계도 탁월함. 과거 20 년간 Business Traveler International 에 의해 “유럽에서 가장 우수한 공항”으로 선정

- 암스테르담의 항만 및 공항시설과 로테르담의 항만시설은 도로, 철도망, 내수로 등 내륙 운송수단을 통해 유럽 주요 시장들과 연결. 도로는 총연장 134,000km, 수로는 6,200km, 철로는 6,500km 임. 도로 포장율 90% 이상이며, 선박운행 가능 내수로는 5,000km, 이중 1,500 톤 이상의 대형선박 운행가능 수로는 1,800km

3) 우수한 물류 전문 인력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무역국가로 무역 및 운송이 화란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 10 위의 무역 대국이며, 세계 5 위의 대외 투자국이다.

3 만명 이상의 풀타임 근로자가 물류 관련 비즈니스에 근무하며, 160 여개의 물류 전문 서비스 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물류관련 협회 및 기관, 대학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학위 및 물류 실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 로테르담 해운물류대학(STC-R.Shipping and Transport College in Rotterdam)
 - 광양분교 개설 (2007.9.10)

4) 효율적이고 비즈니스마인드의 세관시스템

EU 공통의 관세법을 적용받지만 운용면에서는 EU 국가별로 관세법 집행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덜란드는 세관 통관절차가 간편하고 융통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물류 반입 일자에 따라 부가세나 또는 통관세없이 다른 유럽국가로의 물류수송이 가능하며, 보세 창고의 허가도 매우 신속적이다.

5) 유럽 국가중 최고의 외국어 구사능력

남녀노소 및 직업 구분 없이 대부분이 영어를 구사하며, 영어 이외에 독어, 불어 등 기타 외국어 구사도 우수하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유연한 노동시장을 자랑함. 단기 및 파트타임 계약 등 탄력적인 고용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파업 등 분규로 인한 인력 손실은 적은 편으로 알려짐.

다. 네덜란드 비즈니스 환경의 단점

□ 높은 인건비, 비효율적 고용시장

- 유럽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높고, 평균근로시간이 작은 편에 속한다.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우선시하는 법령과 문화 때문에 종업원 결근이 많고, 정규직 해고 시에는 노동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공공부문 및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정부, 근로자와 기업간 크고 작은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외국기업의 국별, 업종별, 지역별 투자동향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진 작은 국가이며, 전국이 고루 발달하여 로테르담 항만지역 또는 암스테르담공항지역(스키폴국제공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유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색에 따라 외국기업의 업종별, 지역별 투자도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도 내외국기업간의 비차별적 대우는 물론 지역별, 업종별 투자유치환경을 특성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통계나 자료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외국기업의 자국화 진전, 자국기업의 외국자본 침투로 내외국기업간 경계가 없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가별 자본 이동에 의거한 통계수치에 따르면, 금액기준 최대 투자국은 미국이며, 독일과 영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산업별로는 고용창출규모를 기준으로 ICT(13%의 고용점유), 물류(12%), 비즈니스서비스(10%) 등으로서 IT와 서비스가 외국기업투자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내외국인 비차별 대우로 인해 국별, 업종별, 지역별로 구분된 외국기업의 투자실적이나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외국기업의 대네덜란드 투자동향은 하기와 같은 일반적인 경향을 추출할 수 있다.

1) 대네덜란드 투자 개요

유럽 단일시장 도입 이후 네덜란드는 외국기업들의 유럽물류센터(EDC, European Distribution Center) 및 유럽지역본부(European Headquarter) 입지로 주목되어 왔다. 네덜란드의 발달된 금융 시스템 및 유리한 세제시스템으로 다국적 기업의 지주회사 및 금융센터가 다수 설립되어 왔다. 이로 인해 세계적 기업의 제 3국 우회투자기지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지리적 이점 및 발달된 투자환경에도 불구하고, UNCTAD 집계에 의한 네덜란드의 투자유치 실적은 감소세로 반전되었으며, 이는 다국적기업들이 동구 및 중국지역 등으로 투자거점을 분산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에서는 투자자금의 유출입 금액을 투자통계로 제시하고 있으나, 집계기준이 달라 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자료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특히 DNB 통계는 다국적기업의 본지점간 대출 및 재투자, 그룹 내부기업간 포지션 변화 등의 제반 금융거래를 반영하고 있어 순수 FDI 투자실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2) 물류중심지로서의 외국기업 투자동향

네덜란드 국제물류협회(HIDC, Holland International Distribution Center)가 주장하는 네덜란드 물류입지의 강점은, (1)우수한 인프라, (2)좋은 기업환경, (3)발달된 물류서비스, (4)친기업적인 정부 등을 들고 있다. HIDC의 자체 통계에 의하면, 유럽에서 5개국 이상을 관장하는 EDC(유럽물류센터) 점유율을 유럽국가간에 비교한 결과, 네덜란드 51%, 벨기에 18%, 독일 11%, 프랑스 8%, 영국 8%, 기타 4%로 나타났다. 유럽물류센터의 50% 이상이 네덜란드에 설치되어 있음을 뜻한다.

네덜란드에 EDC의 설치 외국기업을 보면, 자동차의 경우 Deltran Corporation, Fuji Heavy Industries, Perfect Fit Industries, TYC Europe, 화학의 경우 Essential Industries, Masterank Ltd., Sattler, Toyo Gosei, 의류 및 스포츠용품의 경우 Altama, Dunlop Slazenger Group, Macpac wilderness Equipment, 식품 및 음료의 경우 GUM Products International, Heritage Health, Vodka Cruiser 등 다수가 있다.

3) 제 3국 우회투자 경유국으로 이용되는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발달된 금융시스템 및 유리한 세제시스템으로 다국적 기업의 지주 회사 및 금융센터의 기능을 하는 기업도 많이 설립되어 왔다. 이는 네덜란드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이 제 3국에 투자할 때 네덜란드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 한 후 이를 통해 제 3국에 투자하는 경우이다. 네덜란드 기업명으로 한국에 투자하는 사례 중 필립스, ING 등 네덜란드 토종 기업의 대한투자를 제외하면 상당 부분이 이와 같은 제 3국 기업의 네덜란드 우회 투자이다.

외국투자기업이 네덜란드를 이용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관대한 과세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는 기업이 발생시킨 이윤에 대해서는 1회 부과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주주의 주식처분으로 실현된 자본소득이나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네덜란드기업이 외국으로 지불하는 이자와 로열티 그리고 외국 기업이 네덜란드 기업에 지불하는 이자와 로열티 등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 하고 있다.

4) 최근 외국기업의 대 네덜란드 투자 동향

동구권으로 투자거점 이전에 따라 네덜란드의 실질 FDI 감소 추세, 유럽의 투자유치강국 네덜란드의 투자유치 실적이 2000년대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 이유로, 동구권에 비해 상대적인 투자환경 악화, IT 서비스부문의 투자유치 감소, 숙련노동자 및 대단위 투자유치 공간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네덜란드 투자유치 강점분야로는 소프트웨어,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이며, 동 부문은 여전히 유럽 경쟁국에 비해 높은 FDI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제약 등 여타부문은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적으로 다국적기업의 관심이 동구권 및 중국 등 제 3국 신흥 시장으로 이전되면서 상대적으로 네덜란드의 투자유치환경 및 경쟁력이 저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네덜란드에 투자한 외국기업 수는 2006년 기준 5,380개로 집계되어 2005년도에 비해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외국기업을 통한 고용창출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원: NFIA, HIDC, Ernest & Young, DNB, UNCTAD WID Country Profile, Financial Dagblad)

네덜란드의 연도별 유형별 투자유치실적

(단위: 백만유로)

투자구분	2002	2003	2004
지분투자	5,048	12,946	2,251
재투자이익	-1,112	4,617	4,605
기타	22,669	-431	-10,564
합계	26,604	17,128	-3,708

자료원: UNCTAD WID Country Profile, Netherlands

국가별로는 대 네덜란드 최대 투자국이었던 미국의 투자가 대폭 감소하였다. 미국은 2003년 62억 유로, 2004년 77억 유로의 투자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투자자금 회수는 대부분 다국적기업의 내부자간 대출금 회수 또는 모기업에 의한 투자이윤 송환 등이다 (Press Release UNCTAD, 29 September 2005)

5) 중서부 유럽 거점으로서 투자매력은 여전

네덜란드 투자유치 강점분야로는 IT, BT, 화학,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부품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산업은 네덜란드 본토 기업들의 활동이 왕성하거나 물류 허브로서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들로서 유럽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FDI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이 동구 및 러시아시장을 겨냥한 동유럽 물류거점을 별도로 설립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네덜란드에 대한 투자여력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중서부 유럽의 물류 중심지로서 네덜란드의 매력은 여전히 높은 편으로서 한국의 중견, 중소기업들의 네덜란드 투자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우리기업의 대 네덜란드 투자진출 실적(도착 기준)

한국의 대 네덜란드 투자진출

(단위: 건, 백만 불)

2005		2006		2007(1-9)		누계(1962-2007.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1	40.9	56	204	25	154	259	2,783

주: 상기자료는 2007년12월 현재 입수 가능한 최신자료이며 2007년9월까지의 통계임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2007.12)

나. 우리기업의 대 네덜란드 업종별 투자진출 현황(도착기준)

(단위: 건, 천 불)

산업별	2007(1-9)		1968-2007(1-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광업	4	29,540	62	193,570
제조업	3	495	64	1,867,333
건설업	0	0	1	40
도소매업	4	32,290	75	302,012
운수창고업	2	3,948	9	7,488
통신업	0	0	1	146,903
금융보험업	1	7,500	1	7,500
산업서비스업	9	80,296	26	173,561
총계	23	154,069	98	2,698,407

주: 상기자료는 2007년12월 현재 입수 가능한 최신자료이며 2007년9월까지의 통계임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2007.12)

다. 우리기업의 지역별 투자동향

우리나라 기업의 네덜란드 투자 진출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어 왔다. 우리 기업의 대 네덜란드 투자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유럽 공동물류센터'(KEDC, 주관자는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의 운영으로, 중소기업형 현지 법인 개설이 증가하고 있다.

- 유럽 물류센터: LG 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세브로레자동차, 한국타이어, 하이로 등
- 조립생산공장 및 서비스센터: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LG-필립스 등
- 유럽마케팅 및 판매센터: 메디슨, 히타치-LG, 이수화학, 대상 등

상기와 같은 투자 진출 유형에 맞추어 지역별로는 로테르담 항만을 중심으로 한 투자 및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을 중심으로 한 유럽 마케팅 중심형 투자 지역으로 대별된다.

- 로테르담항만지역 투자: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및 한진해운 등
- 암스테르담공항지역 투자: 엘지전자, 메디슨, 히타치-LG, 이수화학 등
- 기타지역: 대우자동차부품(브레다 지역) 등 교외지역 도시에 산재
- 2007년 말, 대우 세브로레는 딜러 체제로 전환, 팬텍은 철수할 예정이다.

라. 우리기업 주요 진출현황표

연번	회사명	투자연도	투자내역	종업원수 (본사: 현지)	투자금액(천불)
1	고려제강유럽	1990	철강	1:3	272
2	삼미유럽	1991	건축자재	1:1	180
3	현대상선	1992	수상운송	3:52	546
4	세브로레네덜란드	1994	자동차	1:48	11,290
5	대우전자베네룩스	1994	전자	2:23	6,000
6	대상유럽	1994	식품, 식품원료	2:2	300
7	삼성전자판매법인	1995	전자	7:95	16,800
8	세브로레유로파츠센터	1996	자동차부품	2:14	363
9	한국타이어판매법인	1996	타이어	2:8	192
10	한국타이어물류법인	1996	타이어물류	2:29	22
11	삼성전자CIS물류법인	1997	전자물류	1:6	100
12	현대엔진서비스	1998	선박기자재	6:10	3,600
13	삼성전자물류법인	1999	전자물류	14:46	15,600
14	LG전자베네룩스판매법인	1999	전자	8:77	3,500
15	삼성물산	2000	의류	1:4	24
16	이수유럽	2001	화학	1:1	240
17	엑스로지스유럽	2001	물류서비스	5:25	120
18	범한물류	2002	물류서비스	2:12	260
19	LG CNS 유럽	2003	정보처리, 컴퓨터	4:8	1,000
20	원진	2004	내화재	4:0	1,200
21	메디슨유럽	2004	의료기기	4:2	500
22	인디텍	2004	LCD TV	2:2	200
23	디지털웨이	2004	MP3 플레이어	4:1	22
24	팬텍	2005	휴대폰	2:1	180
25	하이로직스	2005	물류	7:50	3,671
26	히타치-엘지	2006	광디스크	4:22	-
27	파켄오피씨유럽	2006	프린터부품	1:0	-
28	LG Shared SVC	2006	금융지원	10:4	212
29	로얄소브린홀랜드	2006	문구 등	2:3	-
30	쌍용유럽부품센터	2007	자동차부품	2:3	988

주: 법인설립형태(100% 지분보유) 진출기업으로 지정설치 기업은 제외됨. 투자금액은 자본금 기준임.

자료원: KOTRA 2007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주요 투자법 개요

네덜란드에는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나 금지, 제한규정이 없다. 내국인과 외국인 동일 대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른 투자유치 선진국과는 달리 별도의 외국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도 없으며, 내외국인 동일대우 원칙에 의거 법인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있다. 내외국기업 구분 없이 기업유치를 위한 몇 가지의 인센티브 제도는 운영하고 있다.

나. 투자 장려/제한/금지 분야

네덜란드는 법령을 통해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며 특정 요건만 갖출 경우 외국인의 현지지점 설치, 법인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단, 네덜란드가 정책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물류서비스, 농업 등 네덜란드 고유의 강점분야에는 로테르담 항만청 등 부문별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이 왕성하며, 1:1 협상에 의거 외국기업 유치에 매진하고 있다.

다. 인센티브 개요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외국기업과 자국기업간의 차별이 없으며, 외국기업이 네덜란드에 투자할 때의 명문화된 투자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특정산업이나 업종에 따라 외국기업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정책차원에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의 인센티브 수혜 사례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의 수혜방법 등은 관련 기관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앙정부의 IPR (지역투자보조금)

- 경제력이 약한 지역에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포함
- Greenfield 투자가 주요 대상이며, 네덜란드 북부지역이 주요 수혜지역
- 중앙정부의 투자지원 보조금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의 25%는 자기자본으로 투자

2) EU 제도에 따른 인센티브

- ESF-II(유럽연합 사회기금-II)는 신규 채용, 실업직원 채용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EFRO(지역개발펀드)는 유럽연합 조건에 부합시 제공

3) 수출촉진제도

- EVD에서 시행하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의 프로그램과 유사
- PSB(신규 수출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PESP(초기 수출의 타당성을 분석해주는 프로그램), EKV(수출신용보험제도) 등

4) 고용보조금

- 지역고용사무소(Arbeidsbureau)와 협력하여 실업자를 고용했을 경우에 수혜 가능
- 종업원 교육을 위해서 ESF 등 프로그램 수혜 가능

5) 환경, 에너지 인센티브

- 환경의 경우, 유럽연합의 EU THERMIE 프로그램 수혜 가능
- 에너지의 경우 에너지 상황호전에 기여한다는 추천을 받는 경우에 수혜 가능

6) R&D 보조금

- BTS: 환경기술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해주는 제도
- TOP: Technical Development Projects Decree에 의해 신규개발에 따른 위험을 경감해 주기 위해 최대 25%까지 비용지원

7)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FDI 인정여부 및 인센티브

-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 주식취득의 경우로서, 회사설립, 인수합병의 형태를 포함하여, 관계회사간 이루어진 모든 금융거래(대출, 재투자이익잉여금, 그룹사간 계정구조 변경) 및 부동산 거래 등을 모두 직접투자로 인정
-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일부 분야에 한해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직접투자가 에너지 절약형 자산 구입, 환경친화적 자산 구입, 영화(film) 제작산업 투자, 신기술 취득을 위한 조사연구 비용 및 해당 종업원 임금 등과 같이 특정항목에 속할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제공

라.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네덜란드 투자진흥청

네덜란드 투자진출 관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법령, 제도 관련 문의시 충분한 답변을 한다. 특히 서울주재 네덜란드 대사관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NFIA는 네덜란드 투자기관인 EVD와 2008년 상반기 중 법령에 의해 통합될 예정이며 EVD가 해외 수출과 투자유치 업무 모두를 총괄하게 될 예정이다. 한국 등 해외 지부는 EVD지사로 바뀌게 되며 KOTRA와 같이 수출진흥과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네덜란드 본부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 NFIA)
 - Add: Beuzenhoutseweg 2, P.O.Box 20101, 2500 EC The Hague, The Netherlands
 - Tel: +31 70 379 8818
 - Fax: +31 70 379 6322
 - Website: <http://www.nfia.nl>
 - Remarks: 투자유치 총괄 및 외국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네덜란드 경제부산하 투자 유치 기관
- 서울 사무소
 - Add: Kyobo Building, 13th fl., Chongno 1-ka, Chongno-ku, Seoul, Korea
 - Tel: +82 2 732 1924
 - Fax: +82 2 732 1925
 - Homepage: <http://www.nfiakorea.com>
 - E-mail: nfiako@chollian.net
 - Remarks: 한국기업의 네덜란드 진출 지원

자료원 : NFIA, PWC Netherlands, 네덜란드 중앙은행 자료종합

5. 진출형태별 절차

네덜란드에서의 기업진출 형태는 (1)연락사무소, (2)지사, (3)법인 설립 등으로 나누어지며, 법인설립은 다시 유한회사(B.V.)와 주식회사(N.V)로 나누어 진다.

가. 연락사무소(The Representative Office, The Liaison Office)

1) 연락사무소 설치 개요

연락사무소는 현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므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득을 창출할 수도 없으며, 시장정보 수집 또는 국내 연락망으로서 활동한다. 연락사무소는 현지 상공회의소에 등록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무실 운영의 필요에 의거 상공회의소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등록을 해야만 회사명의로 은행구좌 개설, 전화설치 및 자동차임대, 직원 채용 등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연락사무소는 소득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의무는 없으나 대표자는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은 물론, 근로허가 및 거주허가는 받아야 하며, 직원 채용 시 일반적인 현지 노동법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연락사무소를 상공회의소에 등록하는 절차는 '지사' 설립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 지사 (The Branch Office)

1) 지사설립 개요

지사는 현지의 독립법인이거나 아닌 모기업의 일부인 지점으로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B.V.라고 하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과 차이가 없으나, 상공회의소에 등록은 하여야 한다.

지사설립에는 회사등록증 발급을 위한 상공회의소 등록절차와 부가세 번호 등 발급을 위한 국세청 등록 등 2가지의 등록절차가 있다.

2) 지사설립 절차

상공회의소 등록 (회사등록증 발급)

○ 각종 신청서류 제출

- 상공회의소 Form 6(외국기업등록서), Form 11(모기업의 대표이사 인적사항), Form 13(지사장 인적사항) (주) 영어양식도 있으나 제출시는 네덜란드어 양식 이용
- 1 개월 이내에 발급된 한국 상공회의소 등록증(영문)
- 대표자 및 지사장 여권 사본 등을 제출한다.

- 상공회의소 연락처: Kamer van Koophandel Amsterdam (KVK Amsterdam)
 - Add. De Ruyterkade 5, 1013 AA Amsterdam, The Netherlands
 - Tel. 31-(0)20-5314000 / Fax. 31-(0)20-5314799
 - Homepage: www.kvk.nl (신청절차 상세 안내 및 신청양식 다운로드 가능)

□ 국세청 등록 (세무번호 취득)

- 국세청신고서 제출: 신고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국세청 연락처: Belastingdienst Amsterdam
 - Add. Kingsfordweg 1, 1043 GN Amsterdam, The Netherlands
 - Tel. 0800-0543 / Fax. 31-(0)20-6877299
 - Homepage: www.belastingdienst.nl (신청양식 다운로드 가능)

3) 지사설립의 장단점

□ 장점

네덜란드 진출 초기에는 지사설립이 법인설립 보다 간소하고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으며, 비밀 유지가 용이하다.

□ 단점

지사가 수행한 법적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클레임에 대해 모기업(본사)가 전적으로 책임 진다는 점에서, 자본금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B.V.(유한책임회사) 또는 N.V.(주식회사)와 다르다. 이 점에서 외국기업들은 지사보다는 유한책임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다. 법인설립 (B.V.)

1) 법인설립 개요

- 네덜란드에서의 법인은 유한책임회사(B.V.)와 주식회사(N.V.)의 두 가지가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으며, 증시상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통상 B.V. 형태의 법인을 설립한다. 유한책임 회사는 주식공모를 할 수 없으며 주식양도는 제한되어 있다.
- 지사 설립시에는 공증인이나 일반 여부에 관계없이 지사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현지법인 설립에는 공증인이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법인설립 절차

- 법인설립 발기인이 네덜란드의 공증인(Dutch Public Notary)를 지명한다. 공증인으로 법무법인을 지명하여도 된다. 공증인의 법인설립 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약 3,000 유로가 소요된다. (동 수수료는 상호확인, 사업등록, 자본금납입에 따른 은행확인서, 법무부의 '이의 없음' 확인서, 공증수수료, 0.55%의 자본세 및 법률비용 등임)

- 공증인은 법인설립 발기인으로부터 각종 서류를 제출 받아, 네덜란드 법무부에 “이의 없음 확인서”를 발급한다. 법무부 승인에는 약 8 주가 소요되나, 법무부 승인 이전 에라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성공회의소에 “설립정차 중인 유한 책임 회사 - B.V. i.o.”로 등록하면 된다. (i.o.는 설립절차가 진행중임을 의미함.)
- 법인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 공증인에 대한 위임장, 설립자 및 이사의 각종 은행 증명서, 설립자의 대차대조표, 법인설립 정관, 설립자의 법인설립 정관, 설립자의 관리 책임자에 대한 권한위임장(공증) 등
- 주식발행 및 납입자본금이 최소한 18,000 유로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회사는 45,000 유로), 동 법인자본금 보유 및 투자내역 증명은 은행잔고, 사무실비품구입, 차량구입 내역 등을 합한 자본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 법무부 승인 후 상공회의소에 등록함으로써 회사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상공회의소 Form 3(법인등록), Form 11(본사 대표이사 인적사항), Form 13(법인장 인적사항) 등을 작성, 제출한다. 상공회의소 등록비는 약 145 유로이며, 동 절차도 법무법인이 대행한다.

3) 법인(B.V.) 설립의 장단점

□ 장점

현지 법인이 수행한 법적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클레임에 대해 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 단점

지사설립의 경우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비용이 많이 든다.

(주) 지사 및 법인설립은 네덜란드에 설립할 사무실의 법적 지위이며 동 지사 또는 법인에 파견할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는 별개로 취급된다. 동 지사 또는 법인에 파견할 근로자는 (1)근로허가서 (Working Permit) 취득, (2)임시체제비자(MVV) 취득, (3)현지 부임 후 거주 허가증(Residence Permit) 취득 등의 3개 단계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동 절차는 ‘이주 정착가이드’ 참조)

라. 공장설립 가이드

외국기업이 네덜란드 내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은 1) 네덜란드측 합자/합작선의 현물 출자, 2) 지방정부로부터 유상배정, 3) 부지임차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공장설립을 위한 표준절차는 없으며, 각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인허가 관련사항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네덜란드 투자진흥청(NFIA)를 접촉, 자문을 구한다.

NFIA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준다.

□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사항

공장의 용도와 규모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등에 기초하여, 건 별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공장의 규모, 용도 등에 따라 중앙정부 승인사항 또는 지방정부 승인사항으로 구분되며, 특히 공장 설립에 따른 환경평가를 매우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FIA 또는 전문 컨설팅회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부동산 취득 및 공장 신, 증축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한이 없다.
- 부동산 취득시 지역 등기소에 반드시 등록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등복시 소유권, 저당권, 관련 법원판결 등이 모두 기재된다.
- 기타 건축물 신, 증축의 경우, 관할 시청 내 지역건축심의위(Local Council)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 증축 신청시 Local Council 에서는 건축 부지, 건축물의 디자인, 공해산업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일부 대형 건축물이나 특별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 건축물의 공업용수 허가는 관할 수로국(Water Board)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공해 사업의 경우는 공해방지법 및 수질오염 방지법 등에 의해 추가적으로 관련 시설물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투자입지여건

가. 네덜란드의 산업단지

네덜란드는 산업별 특색 있는 산업단지, 외국인 전용 기업단지 등이 없으며, 외국기업은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형태에 따라 입지를 선택해야 한다. 물류유통 중심일 경우 로테르담이 유리 하며, 유럽 본부 성격일 경우 스키폴 공항이 있는 암스테르담이 유리하다.

네덜란드에는 특징적인 산업단지는 없으나, 유럽물류거점으로서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Warehouse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도시 별로 조성되어 있다.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공단은 DSM(화학), Hoogeveen(철강) 등을 제외하고는 미미하다. 그러나, DSM(DSM화학회사 소재: 한국의 울산과 유사), Hoogeveen(Hoogeveen 제철소재: 한국의 포항과 유사) 등도 방대한 규모의 1개 단위회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산업단지로 정의할 수는 없다.

네덜란드 내에 소재한 많은 공단들(암스테르담, 림버그, 로테르담, 알미르 등 다수 지방공단 소재)은 대부분이 Warehouse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공단에 소재한 기업들의 활동은 물류 혹은 부가가치 물류로 집약된다. 즉 단순 물류유통뿐 아니라 반제품 혹은 완제품을 수입하여 일부 가공단계(라벨링, 일부 조립 등 포함)를 거쳐 소비 시장 별로 특화된 상품을 재생산, 수출/판매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제조업이 약하고 서비스업이 발달한 네덜란드의 특성상 한국식 산업단지의 개념이 네덜란드 에는 없다.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물류중심항만도시인 로테르담이 잘 개발되어 있으며, 동 항만을 중심으로 석유화학단지가 일부 집적되어 있다.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유명기업 및 중소기업 등이 산재해 있을 뿐이며,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중소기업의 산업 클러스터가 일부 생성되어 있으나 대규모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되지 않아 산업시너지 효과는 크지 않다.

나. 과학단지 (사이언스파크)

지방자치 단체별로 산업육성 전략으로 "Science Park"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단지 성격의 Science Park에는 대학부설연구소 또는 벤처중소기업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산학협력의 산실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에 설치된 Science Park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 치	설립연도	면적(Ha)	입주업체/기관 수	근로자 수
Nijmegen	1989	1.5	25	100
Wageningen	1989	5.5	39	400
Amsterdam	1991	20.0	20	150
Leiden	1984	30.0	25	640
Enschede	1981	18.5	106	1,115
Groningen	1988	6.0	51	460
Delft	1992	30.0	15	27

자료원: EZ

다. 지역별 투자여건

네덜란드의 산업단지 및 과학단지 등을 감안한 지역별 투자여건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로테르담: 유럽 최고의 항만인 로테르담항만을 중심으로 물류서비스, 석유화학 입지로 유력하며, 쉘 등 세계적 정유사 및 보팩 등 액화화학 물류기업의 활동이 왕성하다.
- 아인트호벤: 필립스전자, ASML(반도체장비) 등 유력기업이 입주, IT 및 전자산업입지로 유력하다.
- 암스테르담: 알스미어 화훼경매장 및 스키폴공항이 인접해 있으며, 공항물류서비스 및 대기업 마케팅본부 입지로 유력하다.
- 고린첸: 다멘 조선소가 소재하여 조선 및 조선기자재 산업 입지로 유력하며 조선기자재 관련 전시회 등도 동 지역에서 개최된다.

7. 노무관리

가. 노사관계

네덜란드는 노사분규가 적게 발생하는 편이며, 노사 분규가 발생하면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노사분규가 장기화될 경우 노동조합과 사측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오랜 기간 형성된 결과이다.

1) 노동조합

네덜란드의 노동조합 결성비율은 27%에 불과한 데, 이는 유럽 평균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노조원들은 네덜란드 산업노조연맹, 크리스찬국가노동자조합 연맹 및 중고급 근로자 협의회라고 하는 3개의 노동조합의 지배를 받는다.

2) 사용자 단체

사용자들은 사용자단체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네덜란드에는 3개의 주요 사용자단체가 있다. 대규모 산업 연합회들을 대표하는 VNO-NCW 연합회, 중소기업들을 통합하고 있는 MKB Netherlands, 농업단체들을 통합하고 있는 LTO Netherlands 등이다.

3) 노동위원회

네덜란드는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들은 노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위원들은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며, 회사의 규모에 따라 3인에서 25인까지 다양하다. 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반드시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며 회사의 모든 근로자들을 대표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금지되어 있다.

나. 사회보장제도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은 크게 대상 집단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하는데, 국민보험제도(모든 거주자)와 사회보장제도(모든 근로자)이다.

국민보험제도는 모든 거주자가 노령, 배우자나 부모의 사망, 자녀보호와 양육, 특별의료비 등으로 인한 금융상의 경과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

사회보장제도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질병, 실업, 장기근로불가 및 진료로 인한 금융상의 경과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는 수많은 법률과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은 의료비, 질병 및 근로불가능 수당, 실업수당 및 기타 수당 등을 다루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에 투입되는 사회보장분담금은 대부분 정부가 부담하지만 근로자가 일부 부담하거나 사용자가 부담하는 강제적인 분담금도 있다. 사용자 분담금을 피보험 임금의 비율로 표시하면, 불구수당 7.96%, 실업수당(WW) 4.45%, 의무건강보험법(ZFW) 6.25% 등이 있으며, 모든 분담금의 경우 연간 지급할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다.

다. 노동법규

네덜란드에서 근로자들의 이익은 법률규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법규에는 근로시간, 최저임금, 공휴일 수, 공휴일 수당, 안전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법규정 이외에도 고용주 단체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단체근로합의서도 있다.

1) 근로시간법

근로시간법은 산업계와 정부 모든 부문에 적용되는 단일규정이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표준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여성들을 위한 임신중과 임신직후 근로시간 변경 허용, 어린이 근로금지 및 예외규정, 16-17세 청소년들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근로시간에 대한 기록 유지 규정, 근로자들에게 근로형태 변경을 통지할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상급직원과 관리직원에 대한 근로시간법 적용 및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예외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관리자 직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이들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봉급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개별 고용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법정 최저임금과 공휴일 수당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규 근무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 임금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며 상근직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법률에 규정된 최소 휴가일수는 근무일로 20일이며 고용주들이 대부분 1주일을 추가로 준다. 고용기간이 만 1년 미만이면 휴가일 수는 비례적으로 결정된다.

유급공휴일은 신년 1월1일, 부활절 월요일 3/4월(변동), 여왕생일 3월30일, 예수승천일 5월(변동), 화이트데이(변동), 성탄절(12월25일), 박싱데이 12월26일 등이며, 법으로 명시된 다른 유급휴가일은 결혼과 같은 개인적인 행사 1-3일, 배우자 또는 자녀사망 3일, 다른 모든 가족 축일 1일 등이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보상금 지급은 고용계약 종료시 또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쌍방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 고용계약 및 계약의 종료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피고용인으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경우 임시고용계약은 고용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개별고용계약에는 법규정이나 단체노동협약의 규정에서 허용하지 않거나 배치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네덜란드에서 직원 고용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계약기간으로 개별 계약의 기간에 관계없이 3번까지의 고용계약은 임시계약으로 계약기간 종료시 별도의 통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4번째 계약부터는 일종의 종신 고용으로 들어가며 이때부터는 계약해지를 위해서 법원 및 노동사무소에 직원 해고를 위한 절차를 신청해야 하므로 계약갱신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직원 계약해지를 위한 조건은 크게 두 유형으로 직원의 근무실적과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사업영역변경이 있다

먼저 근무실적과 관련하여 해고시 퇴직금은 필요없으며 고용주가 자체적으로 만든 평가 시스템에 따라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문서를 축적하여 해고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평가시스템과 문서에 대한 현지법 규정은 없으며 전적으로 고용주의 재량에 달려있다. 조직변경, 사업영역변경에 따른 경우 일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통상 근무년수 별로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한다. 즉 5년 근무하였으면 5개월치를 근무하면 된다.

고용계약서는 확정된 일정기간 또는 불특정 기간으로 하여 체결될 수 있으며, 확정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그러한 계약은 무기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모든 계약에서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법정 최대 수습기간은 2개월이다. 동 기간내 어느 시점에 양 당사자가 어떠한 의무조건없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고용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채용지정일 및 고용개시일, 계약의 성격(상근직 또는 임시직), 수습기간, 근무기간, 특정 계약기간, 직위 및 요구가 있을 경우 간략한 직무기술 내용, 임금, 2차 고용기간(예: 연금지급계획), 해당될 경우 비경쟁조항 및 비밀유지 조항 등.

고용주가 피고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종료하기 전에 노동 사무소의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유한책임 회사의 관리 책임자 해임
- 법원에 의한 고용계약 해지
- 임시직 고용계약 기간의 만료
- 근로자가 수습기간중 해고될 경우
- 고용주와 근로자 쌍방의 합의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
- 즉각 해고사유(심각한 무능력, 절도 등 수용할 수 없는 행위, 총체적인 업무태만, 합리적인 업무할당에 대한 반복적인 수용거부)에 해당할 경우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 질병에 걸려있을 경우. 단, 그 기간이 2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군복부 중일 때. 단, 단체협약이나 법정규정이 이를 허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출산 8주전부터 출산후 16주까지의 임신부인 경우
- 근로자가 노동협의회 회원인 경우 등

자료원: 네덜란드투자진흥청 투자안내자료(2006년)

3) 법정 최저임금

법정 최저임금은 해마다 상향조정되고 있는 추세이며, 2007년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단위: 유로, 세전 임금)

23 세 이상	1,300.80
22 세	1,105.70
21 세	943.10
20 세	800.00
19 세	682.00
18 세	591.85
17 세	513.80
16 세	448.50
15 세	390.25

8. 조세제도

가. 조세제도 개괄

1) 법인세

법인세는 네덜란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의 전세계 소득에 대해 부과되거나, 외국법인의 네덜란드내 상설조직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 부과된다.

법인세율은 2007년부터 25.5%로 인하되었고, 과세대상 이익 가운데 최초 25,000유로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35,000유로에 대해서는 23.5%의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제를 두고 있다.

거주자인 법인 납세자는 전세계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네덜란드에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국외에서 얻은 이윤에 대해 외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네덜란드 세금을 면제해주는 여러 규정들이 [이중과세방지] 관련 조세협정, 일반 법령 및 참여지분 면세제도 등에 규정되어 있다.

2) 개인 소득세

취업을 통해 얻는 소득을 포함하여 네덜란드에서 창출하는 일정 소득 요인들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식옵션 등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과세대상이 대상 소득그룹으로 세 가지 유형을 설정하고 있는 데, (1군 소득)은 직장 및 가정에서 얻는 과세대상 소득, (2군 소득)은 고액의 이자로부터 얻는 과세대상 소득, (3군 소득)은 저축 및 투자로부터 얻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가능 손실(비용)을 차감한 과표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데, 기초 차감액 1,972유로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추가 차감여부는 개인별 소득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직장 및 가정에서 얻는 소득에 대한 일반 소득세율은 연간 소득규모에 따라 4개 단계로 나누어 적용되는데, 1단계소득(16,893 유로까지)에 대해서는 34.15% (65세 이상은 16.25%), 2단계 소득(16,894 - 30,357유로)에는 41.45% (65세 이상은 23.25%), 3단계 소득(30,358 - 51,762 유로)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42%, 4단계 소득(51,763유로 이상)에도 나이에 관계없이 52%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3) 주재원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 - 30% 비과세규정

네덜란드에 일시적으로 부임하는 주재원은 일정한 상황하에서 30% 비과세규정을 소정의 협약과 신청요건을 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네덜란드 체제와 관련한 추가적 수당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동 일괄 비과세 수당은 최대 총급여와 수당의 총액의 30%까지 가능하며, 이 최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급여에 100/70을 곱한 후 이의 30%를 구하면 된다.

4) 부가가치세

모든 상행위를 하는 자연인 및 법인(상인)은 상행위로 인한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매출에 대한 세금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로도 불리는데, 네덜란드에서는 동 부가세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분배의 순환단계마다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부가세 형태를 보면, 기업이 자신의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 하지만 (매출부가세), 구매시에는 자신이 지불한 부가세(매입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후 해당기업은 세무당국에 주기적으로 세무신고를 하며, 매출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공제한 후 잔액을 세무당국에 납부하며, 반대로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를 초과 하게 되면 차액에 대해 환급을 받는다.

표준 부가세율이 네덜란드는 19%이며, 이는 대부분의 상품과 용역의 거래에 적용된다. 부가 세율이 6%로 낮은 품목의 경우는 식품, 서적과 신문, 신문광고, 의약품, 승객운송 및 호텔 숙박업 에 적용된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 제 3국으로 수출될 경우 해당 수출상품에 대한 부가세율은 제로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수출입 물류가 많이 제 3국에서 물품이 네덜란드 물류창고로 입고되는 시점 에서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고, 물류창고에서 네덜란드 바이어에게 물건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수입통관이 일어나며 이 때 부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부가세납부 및 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네덜란드는 부가세납부 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제품을 수입통관하는 시점에서 부가세를 내지 않고, 분기별 정산을 하여 상계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동 부가세 상계과정은 통상 네덜란드 물류기업이 대행하고 있으므로 제 3국의 수출업자는 네덜란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과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5) 환경세 및 기타

지하수, 상수도, 쓰레기, 연료 그리고 에너지세 등은 환경세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환경 세법에 규정된 것들이며, 환경세와 유사한 크고 작은 세금들이 있는 데, 소비세(excise duties), 자동차 세 그리고 승용차 및 이륜구동자동차에 대한 세금 등이 그들이다.

외국기업이 네덜란드내에 보유중인 부동산을 처분하였을때는 구입 및 매각차액에 따라 CIT Act 규정에 정한 과세표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차액의 최초 25,000유로에 대해서는 20%, 60,000유로 이상은 23.5%, 6만유로 이상에 대해서는 25.5%를 내야한다

(자료원: 네덜란드 재무부발간 조세안내 번역자료(2004), 네덜란드 투자진흥청 투자환경 안내 한글자료(2005) 및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현지 세무전문 변호사 상담. 2007.12)

나.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 네덜란드는 주식처분으로 실현된 자본소득 또는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
- 기본적으로 네덜란드는 이윤에 대한 과세는 1 회 부과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영업 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끝난 주식 등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함.

- 이자와 로열티에 대해 비과세
 - 네덜란드에서 외국으로 지불하는 이자와 로열티에 대해서는 원천세를 면제, 네덜란드로 지불된 분에 대해서도 낮은 원천세율을 적용
 - 세계적인 가수나 영화사업자 등이 벌어들이는 로열티를 네덜란드 회사를 통해 관리하는 이유도 로열티 비과세제도를 겨냥
- 과세율 사전 설정 가능
 - 관계회사간의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과세대상 이윤을 사전에 결정 하는 시스템
 - 해당 과세대상 이윤과 과세율을 세무당국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투자 결정은 물론 기업의 재무계획을 명확히 할 수 있음.
- 저율의 원천세 적용을 위해 세계적인 조세협약 유지 확대
 - 네덜란드는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과 광범위한 과세협약을 체결
 - 네덜란드가 낮은 원천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네덜란드기업은 유리한 세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자유로운 외환거래 환경

네덜란드에는 한국과 같은 외자도입법, 외국환관리법 등과 같이 외국인 투자 및 외환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특별 법령이 없으며, 내외국인 동일 원칙에 의거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현지 자금조달 방법

네덜란드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은 동 사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보험제도 및 채권추심 기관이 발달해 있으며, 이를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입상 또는 거래처 부도시 이를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Credit Insurance가 발달하여 일정한도까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기업은 안심하고 영업에 매진할 수 있으며, 매출 채권 담보부 대출인 경우 한국에 있는 본사의 보증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네덜란드에는 한국의 LG, 삼성 등 우량 대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어, 한국외환은행은 물론 ING, ABN-AMRO 등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은행들도 한국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출 등 영업을 강화 하고 있으며, 이들 은행을 통한 현지대출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 과실송금

자금의 입출금 및 대내외 송금에 대해서는 공식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한, 일반 자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외환취급과 관련된 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환전 및 송금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과실송금도 마찬가지이다.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시장특성

네덜란드는 2006년 기준 수입 규모로만 보면 3,319억 유로가 넘는 거대한 시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중 상당부분이 독일을 비롯한 인근국으로 재수출 물량임으로, 자국 제조업이 빈약한 네덜란드 자체의 시장규모는 교역액보다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덜란드가 교역중심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을 보면 유럽 대륙의 관문으로서의 지리적 위치와 이로 인해 교역물량을 처리하면서 생긴 조직화된 상거래기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우월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네덜란드를 유럽의 물류기지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대 네덜란드 수출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

○ 시장 및 무역활동의 완전개방

- 네덜란드에서는 무역이 생활영위의 필수 불가결한 수단과 방편이 되어 온 관계로 보호 무역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생활터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까지 간주한다.
- 국내 산업의 경우, 경쟁력 있는 산업만 특화 하여 집중 발전시키고, 여타 분야는 외국기업에 과감하게 개방하고 있다. 네덜란드 국민 역시 자국산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실용성에 바탕을 둔 저렴하고도 내구성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 한편, 대다수의 네덜란드 수입상들은 역사적 유대감을 갖는 베네룩스를 비롯하여, 독일, 프랑스, 동구까지를 활동 영역으로 삼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지 수입상과의 확실한 관계 설정 여부는 현지 시장 및 유럽시장 진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겠다.

○ 근검절약의 실용적 소비패턴

-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물에 젖은 휴지를 말리는 곳이 나타나면 그 곳이 네덜란드이다" 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네덜란드 국민은 대개가 검소하다. 이 같은 국민성을 반영, 제품 구매 시 브랜드보다는 실용성에 바탕을 둔 저렴하고도 내구성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 Test Market

- 무역의 완전 개방화에 따라 시장진출은 용이한 반면, 세계 각국의 제품간의 치열한 경쟁과 함께 소비자의 까다로운 소비패턴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성공한 제품은 유럽 지역의 진출이 보장되는 완전한 "Test Market"이다. 일본과 대만 역시 유럽진출 초기에는 자사제품의 소비자 반응과 시장동향을 분석한 곳이 네덜란드이며,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도 유럽시장에 최초 진출한 곳도 네덜란드다.

나. 경제특성

○ 유럽의 Little Gi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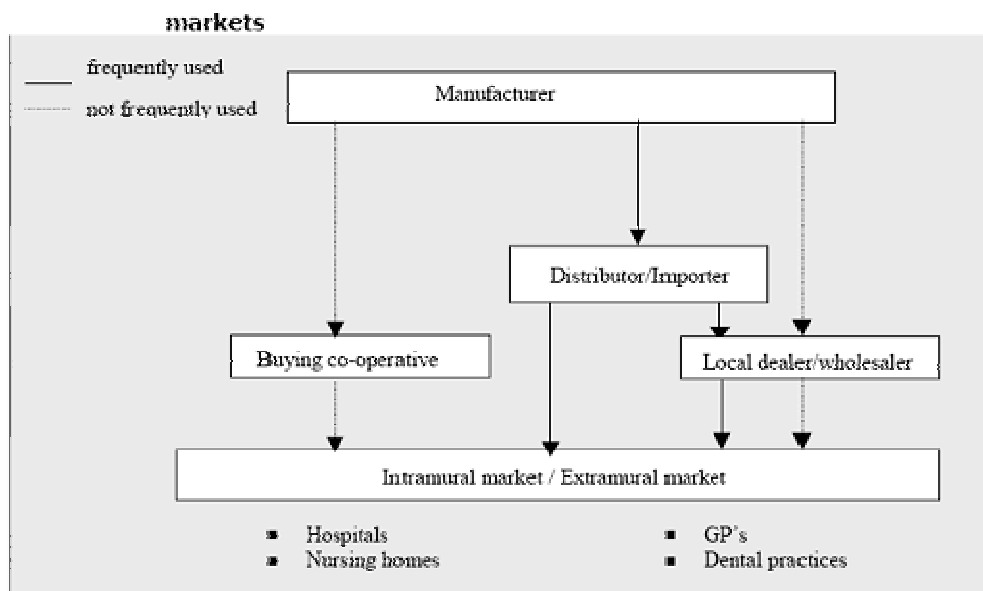
- 협소한 국토면적 : EU 15 개국 중 12 위, 한반도의 1/5 수준
- 무역대국 (2006년 기준 수출 3,693 억유로, 수입, 3,319 억유로)
- 초대형 다국적기업 다수 소재 : 세계 500대 기업 중 16개 기업보유
- (유럽 500대 기업 중 33개 보유)

- 유럽의 Gate
 - 유럽 수입물량의 60%, 수출물량의 30% 취급
 - 세계 최대규모의 로테르담항 보유(유럽 물동량의 40% 점유)
 - 유럽시장의 Test Market : 시장자유화로 국내외 기업간 치열한 경쟁
- 유럽의 Garden
 - 연간 화훼류 수출 US\$ 45 억 (세계시장의 60% 공급)
 - 첨단기술개발로 화훼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성공
 - 평평한 국토보유로 국토개발 활용률 100%에 육박
- 유럽의 경제발전 Model
 - Polder Model: 勞-使-政의 협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사례
 - 독일, 프랑스 등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그리고 척박한 국토조건에도 불구하고, 물류, 화훼, 금융 등 틈새산업을 육성, 경제성장지속

다. 유통채널

네덜란드내에서 유통채널의 경우 크게 제조기업이 최종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과 제조기업-도매상-최종수요자에게 판매되는 간접판매방식으로 크게 나뉘어 지고 있다.

- 첫 번째 직접 판매방식은 제조기업이 최종수요자에게 대규모로 공급할 때 이루어지는 방식임
- 두 번째 간접 판매방식은 현재 네덜란드 소비재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방식임. 수입상과 디스트리뷰터를 경유한 판매방식으로 자급력이나 글로벌 네트워크이 취약한 대부분의 제 3 국 제조업체가 취하는 방식이기도 함.



- 네덜란드 내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시회 또는 상담회 등에 참가하여 네트워크를 꾸준히 발굴, 유지해 가는 것이 추천할 수 있는 방안임.

라. 한국상품 인지도 및 유망상품

일반적으로 네덜란드 바이어들은 한국산 제품에 가격대비 품질수준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단 한국제품의 경우 전반적으로 아시아국가들의 제품과 비교해서 는 상대적으로는 뛰어난 품질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일본산 및 유럽산에 비해 인지도 가 낮은 게 흠이라고 평가함에 따라 제값을 받기 위한 우리기업들의 노력이 요구 되어야 한다.

하기 언급한 상품들은 2005년 및 2006년 시장개척단 등 암스테르담 무역관에서 추진한 사업 관련 바이어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선정한 네덜란드 내 유망한 우리 상품들이다.

1) IT 및 전자제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암스테르담 무역관이 추진한 사업 관련 네덜란드 내에서 가장 성과가 높았던 제품은 단연 IT 및 전자제품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바이어들의 인식이 한국이 IT 및 전자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점이 금년도 사업결과 그대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내 온라인쇼핑몰이 2004년부터 급속히 증가되면서 각종 첨단 컴퓨터부품이나 IT제품 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던 것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우리기업 제품 중 암스테르담 사업에 참가한 P사의 광학펜마우스, S사의 프로젝션 키보드, A사의 USB드라이버 등 컴퓨터 관련 첨단제품 과 전화와 보안용 알람기능을 결합한 보안전화는 바이어들이 가격조건만 맞게 되면 언제라도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힐 정도로 인기를 끈 제품들이다.

PDP/LCD TV 및 위성방송수신기도 인기품목 중 하나로 나타났다. 2004년 말 네덜란드 내에서 디지털위성방송이 본격 가동되면서 시장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그대로 반영, 위성 방송수신기 업체인 I사의 경우 상당규모의 계약을 이루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였다.

2) 미용 및 건강관련 제품

한국산 미용용품 및 모조장신구 제품은 네덜란드 내에서 이미 상당한 지명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제품이다.

특히 미용용품 중 손톱미용 관련품목의 경우 네덜란드 내에서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시장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제품으로 현재 네덜란드 각처에서 다수의 손톱미용 트레이닝 센터가 운영되고 있을 정도이다.

모조장신구 분야도 성장품목의 하나 부상되고 있다. 패션에 대한 유니섹스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장신구에 대한 수요가 과거 여자에서 남녀공용으로 수요층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특기사항이다.. 현재 네덜란드 내 모조장신구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분야는 목걸이 및 귀걸이이며 재질은 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디자인은 가능한 단순한 디자인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용 및 모조장신구 품목에 대한 바이어의 관심도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미 중국산이 활개를 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부 바이어들의 경우는 특징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아예 가격조차 묻지 않을 정도로 무관심했으며 특징이 있는 제품의 경우 가격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 이처럼 중국산과 경쟁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가격 및 품질경쟁력 모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과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련 품목도 네덜란드 내의 시장진출 가능성을 열게 된 품목이다. 2005년 말 네덜란드를 방문했던 P사의 허브이온발생기의 경우 바이어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네덜란드 내의 로하스(LOHAS)에 대한 보다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네덜란드 내에 허브 이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제품이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숙취해소용 바이오 음료도 성공적인 상담을 이루었다.

네덜란드의 경우 약 1.1백만 명이 음주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40% 정도가 상당한 수준의 음주로 인해 숙취에 고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숙취해소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숙취해소 제품의 경우 대부분이 의약품이고 건강제품은 드물기 때문에 우리기술로 개발된 숙취해소용 드링크와 껌은 바이어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끌었으며 일부 바이어의 경우 상담기간 중 한 컨테이너 분량의 제품을 현장에서 계약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3) 자동차 관련 품목 (자동차용 HID 램프키트, 차량용 핸즈프리, 자동차용 블랙박스)

한국산 자동차의 네덜란드 내에서의 높은 판매율 증가로 인해 이와 관련된 부품 및 액세서리, 관련제품들을 찾게 되는 바이어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중반 네덜란드를 방문했던 P사의 자동차용 HID 램프 키트와 차량용 핸즈프리가 네덜란드바이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HID 램프는 네덜란드 내에서 아직까지는 대중화를 이루지 못한 초기단계의 시장을 형성하고 제품이다. 600유로 이상의 고가격으로 인해 대중화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으나 그 수요층이 빠르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HID 램프의 경우 가격적인 경쟁력만 갖출 경우 시장을 선점 할 수 있는 선도적 품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용 핸즈프리도 대표적인 유망품목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네덜란드 내에서 차량용 핸즈프리 시장은 연간 약 30% 이상 확대되고 있는 품목으로 각국의 관련기업들이 시장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 내에서 각종 제품에 활용되고 있는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한 핸즈프리 제품이 가장 유망한 품목으로 분석되었는데, 바이어들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탁월한 수신감도와 편리함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모바일 폰과 자동차오디오를 연결할 수 있는 블루투스 관련 제품이 유망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7년부터 자동차 관련품목중 바이어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은 자동차용 블랙박스이다.

4) 농자재 (원예용 결속기, 하우스 테이프 등)

세계적인 원예국가로서 유리온실산업이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시설원예의 95% 를 차지하고 있는 유리온실의 경우 원예용 결속기 및 하우스테이프 등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 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스페인을 포함한 인근 유럽국가 제품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암스테르담이 네덜란드 농업 관련 시장진출을 위해 집중 지원한 B사의 경우 네덜란드 시장진출을 위해 그 동안 경쟁국가의 제품을 면밀히 분석하고 네덜란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원예용 결속기 및 하우스테이프 등을 개발하여 바이어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2006년 말 성약을 이루어 냄으로써 향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게 되었다.

2. 물가정보

□ 도시: 암스텔담(네덜란드)			- 환율: US\$1 = € 0.698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850	7.1	구두(1켤레, 소가죽)	360
1.2	넥타이(1개, 실크100%)	82	7.2	치약(150g, 1개)	4.8
1.3	와이셔츠 (1벌, 면100%, 긴팔, 흰색, 현지브랜드)	98	7.3	칫솔(1개)	3.8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35	7.4	면도기(1세트)	16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1,800	7.5	건전지(1세트, 1.5V AA)	9
1.6	스타킹(1켤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29	7.6	화장지(1통, 300매)	2.8
1.7	청바지(Levi's)	210	7.7	비누(1개)	1.5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32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6.1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12	8.2	볼펜(12개)	9.3
2.3	닭고기(1KG, 생닭)	10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3.2
2.4	쌀(1KG, Short Grain)	2.2	8.4	공CD(1통, 12개입, 700MB)	10
2.5	밀가루(1KG)	1.5	8.5	휴대폰(범용형)	320
2.6	설탕(1KG, 백설탕)	1.2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45
2.7	계란(10개)	4.0	8.7	인터넷가설비(1회최초, 1회설치)	95
2.8	감자(1KG, 현지산)	1.4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65
2.9	미네랄워터(1.5L, Evian 1Pet)	1.9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40,250
3.1	고추장(1Kg)	10.3	9.2	엔진오일(1L)	4.5
3.2	된장(1Kg)	10.3	9.3	휘발류(1L)	2.1
3.3	라면(1개)	3.0	9.4	자동차등록비(2,000cc)	없음
3.4	설령탕류(1인분, 설령탕, 곰탕 등)	21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1,800
3.5	불고기(1인분, 200g)	28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26	10.1	지하철(1구간)	2.1
3.7	김치찌개(1인분)	21	10.2	시내버스(1구간)	2.1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5.8
4.1	햄버거(1개)	4.2	10.4	택시(추가요금/Km)	1.5
4.2	피자(1판)	26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1.2	11.1	전화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54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1.3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23
4.5	담배(수입산, 1갑)	5.8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평상)	2.4
4.6	위스키(1병, 750ml)	62	11.4	공중전화(3분, 시내평상)	1.6
4.7	커피(1병, 175g)	4.7	11.5	국제전화(현지-서울, 3분, 평상)	3.5
	5. 주택(150㎡)		11.6	국내우편 (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8
5.1	[임차]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urnished)	4,200	11.7	국제우편 (일반편지 1통, 10g 이하, 현지-서울)	1.3
5.2	[임차] 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3,200	11.8	특급우편 (DHL 1개, 1kg이하, 현지-서울)	120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10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4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1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1.7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0.3
6.1	TV(32인치, LG 브라운관 LCDTV)	1,450			

6.2	VTR(6헤드, 범용)	없음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200		
6.4	전자레인지	90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1,800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2,200		

□ 도시: 암스텔담(네덜란드)			- 환율: US\$1 = ₩ 0.698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28개교	18.1	법정최저임금 (월 급여)	1,800
12.2	외국인학교(등록금, American School)	4,500	18.2	상여금(월 급여 대비%, 연간)	10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없음	18.3	사회보장부담금 (월 급여 대비%, 연간)	16%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22,000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20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23,000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16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24,500	18.6	연간국경일	10일
13. 레저·오락			18.7		
13.1	골프장 그린피(비회원,18홀,1라운드)	80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실시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90,000	18.8	노동 쟁의 시 냉각기간일수	없음
13.3	골프공(1타)	52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430	19.1	법정최저자금	23,776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18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3,962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13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없음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	30%
14.1	의료보험료 (4인가족, Full Cover, 초과제외)	4,800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7%~
14.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42			
14.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전액환급			
14.4	치과(스켈링, 1회)	43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3.8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41			
15.2	한국신문(1개월)	없음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55			
15.4	잡지(1부, Time)	6.2			
16. 호텔					
16.1	특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600			
16.2	특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450			
16.3	중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260			
16.4	중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200			
16.5	조식(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50			
16.6	조식(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30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4,002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3,000			

3.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네덜란드에서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방법으로써는 각 산업별 전문 협회나 기관, 그 외 전문 잡지 등 매체 그리고 전시회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네덜란드의 경우 산업별 바이어정보를 제공하는 매체가 발달되지 않았으며 일부 협회가 관련 회원사 리스트를 제공하나 거의 대부분 네덜란드어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하기 박람회 참가, 시장개척단 참가, 해외조사대행 활용 등 KOTRA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오프라인을 통한 가장 효율적인 바이어 발굴 방법이다.

1) 박람회 참가

해외전시회 참가는 바이어와 얼굴을 맞대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음은 물론 현지 시장동향, 기술 동향 등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바이어 발굴 방법중의 하나이다.

해외전시회정보는 KOTRA 운영 한국전시포탈, Rai 전시장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전시포탈: <http://www.exportal.or.kr>
- Rai 전시장: www.rai.nl

2) 시장개척단 참가

KOTRA,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하는 해외시장개척단은 해외시장 개척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해외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를 제공해준다. KOTRA 100 여 개 해외 무역관 에서 사전에 관련 바이어를 접촉, 단체 상담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토록 지원해주므로 해외 시장 개척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마케팅 방법이다.

자세한 해당 정보는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의 초기화면 상단에서 '시장개척 사업' 메뉴의 '시장개척단' 항목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3) KOTRA 해외조사대행 이용

해외조사대행이란 KOTRA 의 해외조직망을 통하여, 고객이 요청하는 유망 바이어정보는 물론 관련 제품의 해외시장정보(수출입통계, 유통구조, 시장동향 등)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이다. 거래선 발굴조사는 현지 수입상의 유선상으로 표명하는 수입 관심도와 현지 시장성(marketability)을 개괄적으로 조사해주는 [관심바이어조사]와 해외무역관 직원이 고객을 대신하여 1 차 상담까지 대행해주는 [관심바이어상담] 등 2 가지 서비스로 구성 되어 있다.

암스테르담 무역관의 경우 수십 년간 축적한 바이어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업체 요청시 가능성이 있는 바이어들을 직접 접촉해서 관심을 보이는 바이어들만 엄선하기 때문에 조사대행서비스는 신규바이어 발굴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무역관을 통해 바이어 발굴을 희망할 경우 KOTRA 본사 및 각 지방무역관을 통해 유료조사 대행으로 요청할 수 있다.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무역관 유료조사대행 요청이 여의치 못하는 기업들은 네덜란드 바이어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 바이어 정보 관련 가장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는 <http://www.abcdirect.nl/e1/> 으로 약 12만개사의 기업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동 사이트는 네덜란드 기업 디렉토리 중 유일하게 영어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품목별 기업검색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업의 간단한 정보(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등)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동 정보를 통해 바이어들과 접촉할 수 있다.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비즈니스 관행

1) 대금결제는 점차적으로 신용거래 확대

네덜란드의 경우 점차적으로 대금결제방식에 있어 기존 L/C거래에서 신용거래로 변화되고 있다.

보편적으로 네덜란드 바이어들은 30일에서 90일정도의 외상거래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TT 방법을 택하는 쪽으로 계약이 추진되고 있다. 신용장(L/C) 거래의 경우 은행에 현금을 예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많이 들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초기 계약의 경우 상당수가 외상거래 또는 TT거래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2) 독점 에이전트 요구

네덜란드는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과 전통적인 상인정신의 기질로 인해 항상 비즈니스 활동무대가 네덜란드에 한정하지 않고 유럽 전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네덜란드 바이어들의 경우 상담시 유럽전역 또는 베네룩스지역에 대한 독점 에이전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무조건 거부하기 보다는 일단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네덜란드를 이용한 아프리카, 중동인들의 무역사기 주의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인들의 무역사기는 이미 알려진 바 오래이다. 이들 사기단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기를 치는가 하면 이제는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선진국을 이용하고 있으며 무역 및 금융부분에서 개방화된 네덜란드가 대표적인 활용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기단의 수법은 대개 비슷하다. 자국의 은행이 한국의 은행 또는 서방은행과 코레스 계약이 되어 있지 않아 현금을 네덜란드에 있는 자금 보관회사 또는 자금중개회사 (Security Company 라고 함)에 맡겨 놓을 테니 직접 찾아가거나 중개회사에 송금을 요청하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사기단이 현금 수송비용을 요구하거나 중개 회사에서 자금 송금비용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기단들의 경우 대부분 허위주소와 06(국가코드 포함시 31-6-고유번호)으로 시작 되는 핸드폰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인데, 상기와 같은 유형의 제의가 왔을 경우에는 암스테르담 무역관을 통해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 비즈니스 상담에서 성공하기

1) 상담 전 준비사항

네덜란드 상인은 협상에 대단히 능하며, 사소한 일에도 냉정한 편이다. 또한 교육수준과 사회적 지위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들은 거래자간의 신뢰도를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신규판로 개척이 매우 힘들다. 그러나, 한번 거래를 맺으면 쉽게 거래선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첫 접촉은 우편을 이용

- 네덜란드 바이어들은 비즈니스 상담시 우편, 팩스, 이-메일, 전화 등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편을 통한 정보를 선호하고 있다.
- 네덜란드의 경우, 바이어정보에 대한 공개가 여타 국가보다 비교적 투명하기 때문에 세계주요국의 수출상들로부터 수많은 거래제의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어들은 팩스나 이메일보다는 우편을 통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선호하고 있다.
- 따라서 우편을 통해 제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첫 번째 우편에는 제품 카탈로그, 회사소개서, 제품설명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무역관을 통해 바이어리스트를 입수하셨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암스테르담 무역관에 제공하는 바이어리스트 경우, 개별적인 전화접촉을 통하여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수입상들만을 엄선하고는 있으나 이들 바이어 역시 당장의 구매의사보다는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우선 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편을 통한 세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거래성사를 위한 지름길로 인식된다.

□ 영문 카탈로그는 필수

- 대부분의 해외마케팅이 그러하듯 제품에 대한 영문 카탈로그는 네덜란드에서 더욱 필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 네덜란드 국민의 약 80%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별도의 네덜란드어로 된 자료가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영문자료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우리기업들의 경우 가끔 국문카탈로그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바이어들은 쉽게 관심을 잃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영문 카탈로그 제작은 필수적이다.
- 또한 네덜란드 기업 및 제품카탈로그에 대해 기업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탈로그 제작시 가능하다면 고급스럽게 제작하는 것이 신뢰를 갖게 하는 데 유리하며 내용 중 오탈자 등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기업소개서(Company Profile)도 중요

- 네덜란드 바이어들은 납기준수와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수출업체의 신뢰도는 공급선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기업소개서는 바로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제품설명서와 함께 필수적인 첨부물이다.
- 기업소개서에는 일반적 사항 외에도 공장이나, 사무실, 연구시설 등의 사진이 들어가면 더 큰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며, 발명특허이나 신제품 생산능력 등 자기 회사 고유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 만일 회사소개서 제작이 어렵다면, 회사 역사, 직원 수 등 기초정보만이라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품카탈로그와 같이 제작되어도 무방하다.

□ 첫 접촉시 Price List 송부는 금물

- 네덜란드 바이어들과 접촉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첫 번째 접촉시 가격리스트를 보내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잘 모르는 공급업체가 대뜸 가격리스트를 보내왔을 경우, 대부분의 네덜란드 바이어들은 모든 바이어들에게 배포하는 홍보물쯤으로 여기며, 실거래 가격은 그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따라서 처음부터 가격리스트를 배포한 업체들은 네덜란드 바이어의 혹독한 가격 후려치기에 당혹해 하는 경우가 많다.
- 샘플 역시 첫 번째 메일링에 동송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불펜, 열쇠고리 등 저가품이 아니라면 좀 더 상담이 진행된 다음에 샘플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 통역원을 활용도 고려

- 네덜란드인들의 영어실력은 비영어권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협상을 자신들이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에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통역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영어-화란어-한국어가 능통한 통역원의 경우 1일 기준(오전 9시-오후 5시) 약 250유로 수준이며 무역관 홈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는 여행사를 통해 추천 받을 수 있다.

2) 상담시 비즈니스 매너 및 유의사항

□ 방문은 항상 사전약속을 통해

- 바이어들과 접촉이 잘 이루어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 바이어를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네덜란드 바이어가 우리제품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한국을 방문 한다면 가장 좋으나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방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 방문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항상 바이어와의 사전약속이 필수적이다. 네덜란드인들은 유럽 내에서도 가장 실용적이고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약속을 하지 않고 방문하게 되면 좀처럼 만나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만나게 되더라도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 선물 및 복장도 중요

- 네덜란드인들 역시 비즈니스에 있어 선물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방문할 기회가 생기면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선물의 경우 뇌물성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가벼운 것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을 나타낼 수 있는 전통적인 선물 이라면 오랫동안 이미지를 각인 시킬 수 있다.
- 한국에서 선물을 준비해갈 경우 전통 차잔, 자개 보석함 등이 좋으며 한국에서 미처 준비를 못해 현지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와인이나 초콜릿 등이 효과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선물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상담 중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한국으로 귀국해서 감사편지 와 함께 선물을 송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상담시 복장 역시 신경을 써야 한다. 복장의 경우 정장이 가장 바람직하나 정장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최대한 단정한 복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의를 차릴 수 있다.

□ 적절한 대화주제 선택

- 네덜란드인은 사업상의 성공을 즐기며, 보통 사업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외에 편안한 대화 주제로는 축구와 네덜란드 문화, 가정 생활 등을 들 수 있다. 종교와 관련된 주제는 다소 심각해질 수가 있으므로 가벼운 대화 시에는 삼가는 것이 좋다.

□ 가격경쟁력이 무엇보다도 우선

- 네덜란드 시장은 유럽의 테스트 마켓이다. 소비자들은 검소할 뿐 아니라 상인기질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가격조건을 거래시 가장 고려되는 요소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가격 경쟁력은 네덜란드 시장에서의 성공의 제 1순위로 여겨지고 있다.

□ 문화적 금기사항

- 네덜란드인들과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을 불러도 좋다고 하지 않는 한 이름을 부르지는 않는 것이 좋다.
- 네덜란드인은 가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일찍 귀가하는 편이므로 저녁식사를 겸한 상담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 상대의 배우자나 이성친구, 또한 자녀에 관한 이야기는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는 한 먼저 꺼내는 것은 실례이다. 또한 여성에게 결혼 여부를 묻는 것 또한 실례이니 참고해야 한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네덜란드는 교역과 투자유치를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장벽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아직까지는 진출시 애로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네덜란드 물류산업과 유럽시장 진출

□ 로얄소브린 성공사례

라미네이터 및 라미네이팅 필름 등을 제조 수출하는 (주)로얄소브린 (사장: 임타관)이 KOTRA 공동물류센터 이용에 힘입어 유럽시장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 14일 KOTRA 암스테르담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5월부터 로테르담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기 시작한 (주)로얄소브린은 소량주문 수주 및 납기단축이 가능해져 바이어의 고객만족도가 제고되어 수출증대를 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유럽 바이어에 대한 수출이 미미했는데 공동물류센터 이용으로 2006년에 19만 2천 유로 그리고 2007년(5.20일 현재)에는 15만 9천 유로를 수출했다”고 (주)로얄소브린의 최인범부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KOTRA 암스테르담무역관은 (주)로얄소브린이 독일법인(창고포함)을 폐쇄하고 네덜란드로 이전하는 단계에서부터 밀착 지원해 왔는데 공동물류센터 이용지원 외에도 현지 바이어 발굴 서비스, 네덜란드 법인 설립지원 서비스, 마이오피스 제공 등 유럽시장 확대를 위한 제반 마케팅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에서 법인(창고포함)을 운영하다 문화적 문제 등 어려움을 겪고 네덜란드에서 사업을 계속하게 됐는데, KOTRA의 지원이 없었으면 이렇게 수출이 늘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로얄소브린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처음에는 1인 법인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법인에는 4명(본사과원 2명, 현재 2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동 물류 센터에 힘입어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이준호 네덜란드법인장은 밝혔다.

또한, 최근 (주)로얄소브린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세계적인 사무용품 체인업체인 Office Depot의 유럽본부와 1백만 유로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주)로얄소브린이 과거에는 엄두도 못 냈던 Office Depot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KOTRA가 운영하고 있는 공동물류센터에 우리 제품이 이미 있고 주문 후 3일 이내에 유럽 전역에 배송될 수 있다고 하니 구매책임자의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아마 재고가 유럽 땅에 와있다는 것이 바이어에게 큰 신뢰를 얻은 것 같습니다.”라고 최부장은 말했다.

중소업체인 (주)로얄소브린이 이렇게 세계적인 대형 체인점 (Mass Merchandiser)에 납품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앞으로 자체적으로 물류창고를 설립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공동물류센터를 통해 유럽수출이 배가되어 판매법인도 설립하고, 나아가 자가물류창고도 갖게 되는 유럽시장진출 패턴은 (주)파칸오피씨, (주)디어포스 등 몇몇 국내업체에서도 볼 수 있다. “(주)로얄소브린 처럼 사업이 번창하여 자체물류창고를 운영할 정도로 회사가 커진 것을 보면 기쁩니다.”라고 KOTRA 무역관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KOTRA 암스테르담무역관은 2004년 4월부터 로테르담항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유럽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물류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왔고, 현재는 25개 업체가 이용하고 있으며, 2006년 공동물류센터를 통해 유럽에 수출된 금액이 1,500만 불을 돌파하였다. 최근에는 법인/지사 설립지원 업무를 강화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더욱 심도 있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에이팩 성공사례

통상 유럽 바이어들은 자신들이 재고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공급자(수출업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중소기업이 유럽에 수출을 시작하거나 증가시키고자 할 때 부딪히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직수출에 따른 높은 물류비와 신속한 딜리버리 시스템의 부재이다.

(주)에이팩은 컴퓨터 부품 (CPU Cooling Fan)을 제조 수출하는 업체인데, 자사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으나 제품 특성상 거래처는 소량, 신속 납품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상담하는 바이어마다 유럽에 물류센터 구축 여부를 문의하였고 아직도 구축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먼저 물류센터를 구축한 뒤 상담을 계속 하자고 하여 상담에 어려움을 겪곤 하였다.

(주)에이팩은 이러한 거래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운송비가 해상 운송에 비해 매우 높게 나와 결국 단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단가에 매우 민감한 자사 제품 특성상 항공운송을 고집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상운송을 이용하자니 바이어의 신속납품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주)에이팩은 유럽시장 진출이 막혔다시피 했고 유럽 수출 담당자인 최과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전전긍긍하였다.

그러던 중 최과장은 KOTRA 암스테르담무역관에서 운영하는 로테르담 공동물류센터에 대해 듣게 되었고, 그는 로테르담 공동물류센터야 말로 자신의 회사를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며 해결하고자 했던 유럽수출 방법이 바로 KOTRA 암스테르담무역관에 의해 이미 2년 전부터 지원되고 있음을 알고 미리 알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했다. 그는 곧 (주)에이팩 내 임직원들에게 유럽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로테르담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적극 주장하였다.

드디어 2006년 10월 19일 (주)에이팩의 제품이 로테르담 공동물류센터에 입고하게 되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물류센터의 선 구축을 요구하며 주문을 주저하던 바이어들이 로테르담 공동물류센터에 제품이 입고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입고 예정 일자에 맞춰 주문을 쇄도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첫 선적분이 순식간에 소진 되었고 바이어의 추가 주문을 충족할 수 없게 되자 일시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바이어에 대한 고객만족 차원에서 항공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06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유럽 수출이 불가능 했던 (주)에이팩이 2006년 하반기에만 10만 유로 이상의 수출실적을 거양하게 되었으며 금년(2007년)에는 유럽 수출이 200만 유로를 상회할 것이라고 (주)에이팩은 전망하고 있다.

KOTRA 암스테르담무역관 (관장 윤재천)은 지난 2004년 4월에 로테르담에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하였고, 현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25개사가 이용중에 있다. 또한, 2006년 공동물류센터를 통한 유럽 수출이 1,500만불을 돌파하였다고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은 밝혔다.

7. 이주정책 가이드

네덜란드에 이주 및 정착하는 데는 입국수속을 마친 후 거주허가 접수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현지 입국 후에는 이삿짐 통관, 주택임주, 자녀 학교입학, 전화 및 자동차 등록 등은 거주허가증 접수 전에도 가능하다.

가. 입국수속 및 현지 거주허가 취득 절차

2007년 6월 1일부로 기존 현지 발령 또는 이주 확정시,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했던 MVV(임시체제비자의 일종)에 대해 정부가 한국국민에 대해 면제조치를 취함으로써 네덜란드 입국수속은 수월해 졌다.

이에 따라 관광목적이 아닌 투자 및 비즈니스를 위해 네덜란드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3개월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현지에서 근로허가서(Working Permit)을 발급받아야 한다.

- 근로허가서 발급은 노동청 양식 AV320 을 작성 제출해야 하며, 소득증명, 파견자와 본사간 근로계약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여권사본, 현지 상공회의소 등록증 초본, 일정기간 경과 후 귀국할 것이라는 보증서 등의 서류가 요구되며, 동 과정 또한 지사 또는 법인설립을 대행한 네덜란드 공증인 또는 법무법인을 통해 추진하게 된다.

3개월 이상 체류를 목적으로 네덜란드를 입국한 외국인인 네덜란드 도착 후 3일 이내에 입국한 가족 동반하여 거주지 관할 경찰서(시청직원 파견근무)에 입국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IND(네덜란드 이민성) 인터뷰, 관할시청 거주신고 등을 거쳐야 한다. 이때 여권사진 2매, 보험증, 고용계약서 집 계약서 등(단 가족 동반시 결혼증명서와 자녀 출생증명서 및 보호자 확인증이 추가 필요)의 서류를 구비한 후에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나라는 카테고리 B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거주신청금(일종의 비자수수료)을 납부하여야 한다. (약간의 요율 변경이 있음)

- 거주신청금: 본인 EUR 258, 12 세 이상 동반가족 EUR 258, 12 세 미만 동반 가족 EUR 169 (적용 시기, 적용 대상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신분증(거주허가증) 유효 기간은 1년 또는 3년의 유효기간을 제공하는 데, 같은 회사의 주재원 또는 동일 주재원의 가족일 경우라도 같은 유효기간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유효 기간은 IND가 자체적으로 정한다. 유효기간 경과에 따라 갱신시에는 사진 2매와 구 신분증을 IND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소재지 보건소에서는 우리나라의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폐결핵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첫 1년간 총 3차례의 X-Ray 촬영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자녀의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 증명서를 한국에서 가지고 와야 하며, 예방접종 확인이 안될 경우 다시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마쳐야 한다.

네덜란드의 이민행정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유명하므로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 Knowledge Migrant 시스템에 의한 입국절차

‘Knowledge Migrant’ 시스템은 네덜란드가 외국의 고급이민자 유입촉진을 위해 200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써, 고소득자 및 지식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Working Permit’ 을 받지 않고 MVV가 발급되기 때문에 일반이민자 입국수속보다 간편하며, 통상 5년간의 거주허가증을 발급받게 되어 거주편의가 크나, 동 제도 수혜를 위해서는 소정의 자격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격요건은, 연봉 45,000유로 이상인 고소득자이거나, 나이가 30세 미만인 자로서 연봉 32,600유로 이상인 대학원졸업생 또는 대학교수 등 지식근로자 그룹에 속해야 한다.

수속절차는, 먼저 지식근로자를 초청할 네덜란드 진출기업은 현지 이민성(IND)에 ‘지식근로자 추천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한국에서 네덜란드에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한 기업들도 등록할 수 있다. 이후 입국대상 지식근로자용 입국신청서를 교부 받아 관련된 서류 일체를 IND에 제출하면 된다.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며, 거절되는 수도 있다.

지식근로자로 승인이 되면, MVV가 자동으로 발급이 되며, 이후 입국하는 방법과 절차는 일반 이민자 입국수속절차와 동일하다.

나. 이삿짐 통관

모든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단, 자동차는 6개월 이상 소유한 것으로서 반입할 때 자동차 소유기간 증명서를 동봉해야 한다. 이사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관세청에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통상 이사화물 통관 전문 기업을 통해서 통관을 하게 된다. 2005년 들어 주재원 이사화물에 대해서도 최근 구입한 고가품의 경우 과세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삿짐 구입 발송시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용하던 물건으로 판정되도록 포장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관세면세신청서는 신청서가 있을 때에 조건부로 효력을 발생하며, 확실한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한다. 소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이사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 면세 신청시 유의사항 (전문통관업체가 대행하므로 참고로 알아두기만 하면 된다)

최종 이사물품 통관 예정일을 기입해야 한다. 만약, 신청일보다 늦을 경우에는 통관예정일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 관세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통관신고를 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Enig Document" 신청서를 교부 받아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이사 물품은 판매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사 물품은 관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상업적 목적으로 대여, 양도 또는 판매 될 수 없으며 이는 통관날짜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만 적용된다. 만약, 통관날짜를 기준으로 물품을 판매,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에는 반드시 지역 해당 관세청에 서신으로 통보해야 하며, 소정의 세금이 부과된다.

일반적인 이사 물품 이외의 물품을 반입시에는 일반 관세법이 적용된다. 즉, 술, 담배, 등화란 의 관세청에서 규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된다.

이삿짐에 신규로 구입한 전자제품, 골프용품 등 고가의 신규구입 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과세대상이 되므로 이삿짐 발송시 최근 통관동향(전수조사 또는 랜덤조사 여부 등)을 이미 정착한 주재원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다. 주택 구하기

한국에서 파견 나온 주재원 또는 이민자 들이 거주할 수 있는 가옥은 전통가옥 (Rijthuis: row house로서 한국의 연립주택과 유사하나 집 앞 또는 뒤에 작은 정원을 갖추고 있음)과 아파트가 가장 보편적이다.

전통가옥의 경우 대개 2-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1층은 거실 및 식당으로 2층 또는 3층은 침실 및 다락방으로 구성)로 되어 있으며, 계단이 좁고 가파른 것이 특색이다.

가격은 지역별로 상이하나 한국 주재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Amstelveen (암스테르담 인근위치)의 경우 EUR 1,500-3,000/월 수준이며, 로테르담의 경우 이보다 약 20% 정도 낮다. 아파트는 방 2-3개(창고별도)형태가 가장 보편적이며 가격은 대략 EUR 1,500-2,000/월 수준이다(세미 퍼니쉬드 기준, 가구가 전무할 경우 통상 500유로 이상 싸진다).

주택의 계약은 당사자간의 가격과 조건이 일치할 때 이루어지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개업체 수수료는 대개 1개월분 임차료와 VAT(17.5%) 기타 행정수수료 등 이며, 계약시 임대인에게 1개월 또는 2개월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예치금 (퇴거시 주택 원상 복구 여부 검사 후 반환)과 1개월 분 임차료를 선불하여야 하여야 한다.

임차료 인상은 연 1회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요율은 연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 이며(대략 1-2% 수준), 임대료에는 편의시설 사용료(가스, 전기, TV 수신료 등)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상례이며, 사소한 보수사항은 임차인 책임 사항이다.

계약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본사 귀임, 전근발령에 대비, 계약서 기본약관에 "외국인 조항" 이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 해지시에는 통상 해지일 기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내부시설 유무에 따라 임차주택은 대략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 진다.

- Fully Furnished: TV, 냉장고, 침대, 식탁 등을 비롯, 입주자가 요리, 식사, 세면, 수면 등을 위한 시설이 일체 갖추어진 집의 형태
- Semi-Furnished: 바닥재, 커튼, 램프 및 부엌가구가 포함되어 있는 집의 형태
- Unfurnished: 내부에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은 집의 형태(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내부 페인트칠과 벽지공사, 전구설치 등 일체를 임차인 본인의 비용으로 해야 함)

라. 은행구좌개설

은행구좌 개설시 소재지에 따라 회사 신분보증서 등의 행정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서류없이 구좌를 개설하는 수도 있다. 구좌 개설시 Pin 카드(일종의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등 두 종류의 카드를 발급해 준다. Pin 카드는 현금인출 및 대부분의 대금결제시 사용하는 카드이며, 동구권을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현금인출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일부 식당 및 호텔비 지불 시 사용되며, 네덜란드의 일반 시내상점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유럽국 여행 또는 비즈니스, 인터넷 물품구입 및 각종 예약시 필요하므로 네덜란드에서는 Pin카드와 신용카드를 모두 보유할 것이 권장된다.

현지 은행에서 현지 유로화 및 달러화 구좌 개설이 가능하며, 암스테르담에는 한국외환은행 지점이 있다. Checking Account(수시로 입금, 출금 가능) 및 Savings Account(일정금액 이상 예치시) 모두 가능하다. 구좌개설 약 1주일 후 은행으로부터 현금 인출카드(일종의 직불 카드)를 교부 받게 된다. 별도의 은행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bank statement가 예금자에게 송부된다. 물품 구입 대금이나 공공요금은 Giro Transfer Form 이나 Credit Transfer Form (Slip)을 이용, 본인 구좌에서 이체 지불한다. 인터넷 뱅킹은 보안이 잘 되어 있으므로 일반 지불 시 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마. 전화신청

여권과 시청에서 발급하는 거주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전화국에 신청하면 된다. 거주 증명서가 없는 경우 신원증명을 위해 보증금을 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며, 인터넷으로도 전화를 신청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국제전화를 할 경우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집이든 사무실이든 할인 요금을 적용하는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할인요금 이용 다이얼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네덜란드의 경우 인터넷 및 전화의 경우 신청 후 개통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관련 행정이 늦은 점이 특색인 바 이점을 감안해야 한다.

바. 자동차 및 비품구입

자동차는 네덜란드에서 거주신고를 마친 후 구입할 수 있다. 자동차 구입시 약 40%의 BPM (일종의 특별소비세)이 부과되므로 인근국보다 자동차를 고가에 구입해야만 한다. 자동차 구입은 주로 딜러를 통해 구입하나, 중고차도 고가이므로 여러 곳의 차량가격을 두루 검토한 후 구입해야 한다. 중고차 구입시 1년 정도의 보증기간을 제공하기도 하는 데, 이 경우 보증기간 없이 구입하는 것보다 고가이다. 딜러를 통해 구입하는 것보다 특정 개인이 3년 정도 사용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는 학교, 회사, 지인 등을 통해 물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네덜란드에는 유료도로가 없는 대신 자동차세, 도로세 등이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암스테르담의 경우 대부분이 자가차량 주차증을 구입하여 집 앞에 주차하게 되는 데, 본인차량 주차증과 방문객 차량 주차증 등 2종을 시청에 가서 구입하여 차량에 비치해야 한다. 동 주차증은 분기별로 자동 갱신 및 송부(자동갱신 시청해야 함)되며, 암스테르담 등 대도시 번잡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집 앞에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

가구, 비품, 전자제품 등은 대형체인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가구류는 통상 IKEA에서 구입한다. 가전제품을 포함한 필수품은 Makro, Hanos, MediaMart(독일계), BCC(영국계) 등의 하이퍼 마켓 또는 대형체인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으며, 종류도 많고 가격도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사. 자녀교육

현지 거주자의 자녀는 조건 없이 현지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다. 현지 이민일 경우 화란어로 교육하는 네덜란드 학교에 취학시킬 수 있으며 네덜란드 학교는 고등학교까지 수업료가 면제 된다(2005년부터 16세 이상도 고등학교 수업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개정됨). 주재원의 경우 통상 국제학교에 자녀를 취학시키게 된다.

네덜란드에는 외국기업과 외국인이 많이 진출해 있어 국제학교가 지역별로 많이 있다. 암스테르담, 헤이그, 로테르담 등 주요 도시에 있는 국제학교를 수업료 수준에 맞추어 적절히 취학시킬 수 있으며 주재원의 자녀도 현지학교에 취학시킬 수 있다.

암스테르담의 초등 과정은 브리티시와 인터내셔널 2개, 중고등과정은 인터내셔널스쿨과 브리티시 2개가 있다. 수업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인터내셔널스쿨(중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수업료 18000유로 이상) 대신 브리티시스쿨(연간 12000유로 이상)에 취학시키기도 한다.

수업료가 비싸지만 학교시설이 우수한 International School of Amsterdam의 경우, 입학 신청 후 T/O 사정에 따라 입학 허가를 받을 때까지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자 하는 경우 주재원 발령과 함께 입학수속 서류를 사전에 발송하는 등 학교당국과 사전 유선접촉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저학년의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성적증명서도 필요하므로 일부 부분은 영문으로 번역하여 가져오는 것이 좋다. 국제학교 입학은 통상 학부모 및 학생과의 인터뷰를 거쳐 입학 승인이 나게 된다. American School의 학제는 통상 Kindergarten 4-5세, Elementary School (Grade 1-4) 6-9세, Middle School (Grade 5-8) 10-13세, High School (Grade 9-12) 14-18 세로 되어 있다.

네덜란드에 소재한 국제학교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The International School of Amsterdam
 - 주소: Sportlaan 45, 1185 TB Amstelveen
 - 전화: +31 20 347 1111
 - 팩스: +31 20 347 1222
 - 홈페이지: www.isa.nl
 - 이메일: admissions@isa.nl
-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 of Rotterdam
 - 주소: Verhulstlaan 21, 3055 WJ Rotterdam
 - 전화: +31 10 422 5351
 - 팩스: +31 10 422 4075
 - 홈페이지: www.aisr.nl
 - 이메일: information@aisr.nl
- The American School of the Hague
 - 주소: Rijksstraatweg 200, 2241 BX Wassenaar
 - 전화: +31 70 512 10 60
 - 팩스: +31 70 511 24 00
 - 홈페이지: www.ash.nl/index1.html
 - 이메일: admission@ash.nl

- The British School in the Netherlands
 - 주소: Vlaskamp 19, 2592 AA Den Haag
 - 전화: +31 70 333 8111
 - 팩스: +31 70 333 8100
 - 홈페이지: www.britishschool.nl
 - 이메일: info@britishschool.nl
- The British Primary School of Amsterdam
 - 주소: Anthonie van Dijckstraat 1, 1077 ME Amsterdam
 - 전화: +31 20 679 7840
 - 팩스: +31 20 675 8396
 - 홈페이지: www.britams.nl
 - 이메일: info@britams.nl

아. 병원 이용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이민자 또는 주재원의 경우, 대부분 보험료 수준에 맞추어 별도의 의료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의료보험료는 통상 4인 가족의 경우 월 약 300유로가 소요되며, 대부분의 의료비가 커버된다.

의료보험 가입 후 가정의를 별도로 수배하여 정해 놓아야 종합병원에서 2차 진료가 가능하다. 단, 응급환자 발생시는 가정의를 경유하지 않고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 의료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가 의료비를 선지불하고, 후지원을 받게 되는 데, 해당 영수증 원본을 첨부하여 의료보험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통상 3개월 주기로 환급 받는 것이 좋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네덜란드는 북위 50-53도의 고위도에도 불구하고 북해연안에 인접해 있어 따뜻한 대서양 난류로 인해 온화한 해양성 기후를 갖고 있다. 여름은 서늘하고 겨울은 온난하며, 지역간의 온도차도 극소하여 동부와 서부간의 연평균 기온 차는 2도 내외 안팎이다.

네덜란드의 연간강우량은 약 760mm, 눈 내리는 날은 연평균 17일 정도이다.

네덜란드 기후의 특징적인 사항은 일년 내내 건기가 없고, 봄철을 제외하고는 다소 강수량 많은 편이며 특히, 9월부터 익년 3월까지의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자주 내린다는 점이다. 여름철 평균기온은 18도 정도이나 아침은 선선하고 점심 때는 덥고, 저녁은 다시 선선해지는 등 일교차가 심하며, 겨울철 평균기온은 8도로 온화한 편이나, 바람이 많이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출장 복장을 준비함이 바람직하다.

□ 월별 평균기온 및 일조시간은 아래와 같다. (과거 30년 평균)

월	평균기온 (섭씨)	일조시간
1	2.1	44
2	2.3	65
3	4.7	111
4	7.8	161
5	11.9	206
6	15	209
7	16.5	189
8	16.5	184
9	14.2	140
10	10.2	110
11	6	51
12	3.3	38

나. 시차/근무시간

1) 시 차

한국시간 보다는 8시간 (하절기 서머타임 실시에는 7시간)이 늦어 한국이 21시일 경우 네덜란드는 동일 13시(하절기는 12시)이다.

서머타임 실시기간은 매년 3월 마지막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오후 4시(서머타임 중)/5시(서머타임 이후)이후에 네덜란드에 전화하여 업무를 보는 것이 적당하다.

2) 근무시간

근로자의 법정최고 근무시간은 45시간이나 매년 개최되는 노사간 포괄협상을 통해 현재는 주 38-40시간 근무가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 되고 있다.

최근 들어 주 36시간 근무업체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경찰노조의 경우 32시간제로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 중소기업연맹(MKB) 등 기업측 입장에서는 네덜란드가 근무시간이 EU 내에서도 작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하는 등 근무시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과거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근무시간 확대를 추진코자 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대부분 일반사무실(은행 및 우체국포함)의 경우 08:30에서 16:30까지 또는 09:00에서 17:00시까지 근무하며, 주 5일 근무제가 가장 보편적이나 은행의 경우 금요일 오후 격주 휴무제가 노사간 합의로 '96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개인 의사에 따라 근무시간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도를 도입한 회사도 상당 수이다. 근무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비즈니스 목적의 미팅은 금요일이 적합하지 않다. 휴일의 증가 와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금요일을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 상점은 일반적으로 주중에는 10:00부터 18:00까지 주말(토요일)에는 17:00까지만 영업한다. 일요일은 암스테르담, 헤이그, 로테르담 등의 대도시의 일부 쇼핑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점한다.

3) 대부분의 상점들 문 여는 시간

- 월: 13-18시 (백화점 11-18시)
- 화-금: 9-18시: 하지만 2006년말부터 대형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평일에도 22시까지 문을 여는 상점이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대도시의 경우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상점들이 확대되고 있다..

4) 은행

- 월: 13-16시
- 화-금: 9-16시
- 토, 일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

다. 주요단위(도량형)

네덜란드의 도량형은 한국과 같은 미터법 및 그램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미터법 단위

길이	mm	cm	m	km
부피	-	cm ³	m ³	-
넓이	mm ²	cm ²	m ²	km ²
무게	mg	g	kg	ton

라. 출입국/비자

1)비자관련 일반 사항

- 3개월 이내의 단기출장
 - 한국-네덜란드 양국간 비자면제 협정에 의해 90일 이내의 체류에 대해서는 비자가 면제된다.
 - 최근 6개월 동안 누적체류 일수가 90일을 초과해선 안된다.
- 3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 2007년 6월 1일부로 기존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만 했던 임시체류비자(Mvv)가 면제됨으로써 3개월 이상 장기출장의 경우에도 일단은 네덜란드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 하지만 근로허가서(Working Permit)는 여전히 득해야되기 때문에 출국 전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관련기업을 통해 취득을 위한 진행절차를 밟아야 한다.

2)출입국 절차

□ 네덜란드 입국 절차

- 항공편으로 네덜란드로 입국하게 되면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공항인 스키폴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밟는다. 스키폴공항은 유럽 내 주요도시와 전세계 약 250여 개의 도시로 연결되며 한 터미널에서 도착과 출발이 이루어져 환승하는 데 상당히 편리하다.

- 입국절차
 - 게이트 → 출입국신고 → 수화물 수취 → 세관검사 → 도착
 - 출입국 카운터: 비행기에서 내려 도착표시(Arrivals)를 따라 자동보도를 타고 가면 출입국을 관리하는 창구를 발견할 수 있다. 여권과 사증을 제시하는 간단한 절차를 마칠 수 있다.
 - 수화물 수취: 출입국카운터를 통과 하게 되면 곧바로 수화물을 수취할 수집하장이 나온다. 모니터 화면에서 비행편 번호를 확인한 후 벨트에서 수화물을 찾는다.
 - 세관신고: 신고할 물건이 없을 경우 녹색창구로, 신고할 물건이 있을 경우 붉은색 창구로 들어간다.
 - 도착: 세관검사를 끝나게 되면 밖으로 곧바로 나오게 된다.
-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먼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한 후 분실증명확인서(Police Report)를 발급, 주 네덜란드대사관을 방문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한다.
 - 여행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 신청서(주 네덜란드 한국대사관에서 발급)
 - 사진
 - 여권분실 확인서 (현지경찰서 발행)
 - 여권번호 및 발급일자, 유효기간 (여권의 관련면 항상 복사 소지요망)
- 세관 검사
 -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는데, 특별한 것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세관 검사대는 X-Ray 투시기가 있어 수하물은 투시기를 통과시켜 의심이 가는 가방만 열어 본다. 그러나 세관원에 따라 그냥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다.
 - 출입국에 필요한 특별한 검사는 없으며 예방접종 또한 필요 없다. 입국시 신고물이 있을 경우에만 세관검사대를 거치며, 그 외에는 대부분 세관검사 없이 통관을 한다. 단 세관원이 임의로 선택하여 세관검사를 하므로, SAMPLE 등은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샘플통관
 - 네덜란드의 경우 샘플 및 브로슈어의 경우 특별히 제제를 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대량의 경우 문제발생소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샘플 송장(Commercial Invoice)을 준비 해 오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Commercial는 없는 것으로 표기하는 것을 추천한다.
- 환승
 - 스키폴공항에서의 환승은 매우 편리하다. 스키폴공항은 하나의 터미널로 이루어져 있어 게이트를 통과해 환승창구를 이용 탑승하는 여타공항에 비교 아주 쉽게 환승할 수 있다.
 - 게이트-공항에 도착하면 모니터 화면에서 탑승시간과 게이트가 표시된 정보를 확인하고 게이트로 이동한다.
 - 환승창구-연결항공편 탑승권 소지시 : 스키폴 공항에 도착하면 모니터 화면을 통해 환승을 위한 탑승시간과 게이트 번호가 표시된 환승정보를 확인하고 시간에 맞추어 곧장 출발 게이트로 이동해 환승할 수 있다. 연결항공편 탑승권 미소지시 : 연결항공편의 탑승권을 미소지할 경우 모니터 화면 에서 안내하는 환승창구를 통해 새로운 탑승권을 발급받아 환승할 수 있다.

2) 네덜란드 출국 절차

- 출국 수속장에서 탑승수속을 마친 후 “Passport Control” 카운터를 통과하면 바로 면세 점들이 보이는 출국라운지를 볼 수 있으며 아울러 게이트가 나온다. 게이트는 탑승권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를 확인 사인보드를 따라 쉽게 찾을 수 있다.
- 네덜란드는 19%의 부가세가 적용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 한하여 출국신고서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탑승수속을 마친 후 출국시 구매한 물품의 상점으로부터 받은 신고서에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출국장 옆에 있는 Tax신고소 또는 ABN Amro은행에서 구매물품과 여권, 탑승권을 보여주고 세금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마. 환율/환전

1) 환율

- 네덜란드가 2002년부터 유로화를 사용함에 따라 현재 통화는 유로화이며 2007년 2월 26일 기준 유로화의 환율은 다음과 같다
 - 1 EUR = 1,356.10원 (2007.12.20)
 - 1 EUR = 1.4341 USD (2007.12.20)

2) 환전

- 환전은 은행, 환전소, 호텔 등에서 가능하나 환전수수료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 은행: 3-4%
 - 환전소: 3-6% (공항 내 환전소는 수수료 저렴 2.5-3%)
 - 호텔: 6-11%

바. 교통/통신

1) 교 통

시내 대중교통 수단으로 택시, 버스, 지하철(Metro)과 경전철(Tram)을 이용할 수 있다.

□ 택시

공항, 대형호텔, 역, 기타 지정택시 승강장에서는 주차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전화로 호출을 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Call Taxi는 Taxicentrale (020 6777777 - 전화번호)이다. 택시 요금은 한국에 비하면 다소 비싼 편으로 기본요금은 2.90유로이다. 참고로 공항 (Schiphol)에서 무역관이 위치하고 있는 암스테르담 남부지역 (Strawinskylaan 767)까지 편도 약 30유로 정도가 소요됨(11km)

□ 버스, 지하철, 경전철

연계권으로 공동사용 하는데, 승차권은 차량내부에 설치된 자동판매기(혹은 운전자가 직판)를 이용하거나, 3-4일 이상 장기 체류 시에는 우체국 등 지정판매소에서 15구간용(EUR 6.20), 혹은 45구간용(EUR 18.30)을 구입하면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Strippen kaarten라는 이 승차권은 우체국, 담배 판매점, 기타 잡화점, 일부 슈퍼에서 살 수 있다.

네덜란드는 교통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경전철이나 버스 등을 이용할 때 동일 구역 내에서는 버스, 전철, 경전철에서 같은 승차권 이용이 가능하다. 승차권을 사용할 때는 "구역 +1"을 적용하여 즉, 목적지까지가 3구역일 경우 3+1 즉, 4칸에 해당되는 표를 구입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방법은 차량 내 검인기계(노란색 기계)에 승차권을 넣게 되면 검인된다.

□ 기차

시외 교통수단으로는 기차가 가장 저렴할 뿐 아니라 하며 편리하다. 네덜란드 철도청의 인터넷 사이트인 www.ns.nl을 이용하면 네덜란드 국내선 및 국제선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2) 통 신

□ 시내전화

유로 동전이나 전화카드 이용 가능하나 시내에 공중전화기가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출장시 한국에서 휴대전화를 로밍해 오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국제전화

동전이나 카드이용은 시내전화와 마찬가지로 동일함. 다만, 먼저 국제전화 인식번호를 누른 후 국가번호, 지역번호, 전화번호 순으로 다이얼하면 된다.

(예; 네덜란드에서 서울로 전화할 때) 00(국제번호) - 82(한국) - 2(서울) - 전화번호
(예: 서울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전화할 때) 001(국제번호) - 31(네덜란드) - 20(암스테르담) - 전화번호

참고로 호텔 객실 내 국제전화를 사용할 경우, 상당히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사. 호텔/식당

1) 호텔

네덜란드 내 대부분 호텔은 인터넷을 통해 예약가능하다
(www.hotelnl.nl, www.bookings.nl)

암스테르담 인근지역에 위치해 있는 주요 호텔은 다음과 같다.

□ Hotel Okura(☆☆☆☆)

- 위치: Ferdinand Bolstraat 333, 1072 LH
 - Schiphol 공항에서 차량으로 15분, 다운타운까지 7km, 암스테르담 RAI 전시장역에서 도보로 5분
 - 공항 셔틀버스 운행 (50분 간격)

- 객실요금(Standard room 기준 - 정상가격)
 - 싱글 270유로, 트윈 300유로
- 인터넷 사용여건
 - Wireless 인터넷 카드로 객실에서 인터넷 이용 가능 (일일 30유로)
 - 비즈니스 센터에서 인터넷, 팩스 등 통신 시설 이용 가능
 - 회의실 등에는 인터넷 설치 가능(사용료, 설치비 별도 청구)
- 연락처
 - 전화: 31(0)20-678-7111/ 팩스: 31(0)20-671-2344
 - 웹사이트: www.okura.nl

□ Hilton Amsterdam Hotel(☆☆☆☆☆)

- 위치: Apollolaan 138, 1077 BG Amsterdam
 - Schiphol 공항에서 차량으로 15분, 다운타운까지 7km, Rai 트램역에서 도보로 5분
- 객실요금(Standard room 기준 - 정상가격)
 - 싱글 250유로, 트윈 : 280유로
- 인터넷 사용여건
 - Wireless 인터넷 카드로 객실에서 인터넷 이용 가능 (일일 20유로)
 - 비즈니스 센터에서 인터넷, 팩스 등 통신 시설 이용 가능
 - 회의실 등에는 인터넷 설치 가능(사용료, 설치비 별도 청구)
- 연락처
 - 전화: 31(0)20-710-6000 / 팩스: 31(0)20-710-6080
 - 웹사이트: www.hilton.com (Hilton Hotel 글로벌 통합홈페이지)

□ Dorint Sofitel Amsterdam Airport Hotel(☆☆☆☆☆)

- 위치: Stationplein 951 1117 CE, Schiphol
 - 스키폴공항에서 5분
- 객실요금(Standard room 기준 - 정상요금)
 - 싱글 180유로, 트윈 200유로
- 인터넷 사용여건
 - 객실에서 Wireless 인터넷 이용 가능 (무료)
 - 비즈니스 센터에서 인터넷, 팩스 등 통신 시설 이용 가능
 - 회의실 등에는 인터넷 설치 가능(사용료, 설치비 별도 청구)
- 연락처
 - 전화: 31(0)20-540-0777
 - 팩스: 31(0)20-540-0700
 - 웹사이트: www.sofitel.com (Sofitel Hotel 글로벌 통합홈페이지)

□ Novotel Amsterdam(☆☆☆☆)

- 위치: Europa Boulevard 10, Amsterdam
 - 공항에서 차량으로 15분, 다운타운까지 8km, Rai 트램역에서 도보로 3분
- 객실요금(Standard room 기준 - 정상가격)
 - 싱글 160유로, 트윈 180유로
 - 여행사를 통한 예약시 싱글 110유로, 트윈 130유로 (여행사 정보는 암스테르담무역관 홈페이지 호텔예약 정보 참조)
- 인터넷 사용여건
 - Wireless 인터넷 카드로 객실에서 인터넷 이용 가능 (일일 27유로)
 - 비즈니스 센터에서 인터넷, 팩스 등 통신 시설 이용 가능
- 연락처
 - 전화: 31(0)20-541-1123
 - 팩스: 31(0)20-646-2823
 - 웹사이트: www.novotel.com (Novotel Hotel 글로벌 통합홈페이지)

□ Holiday Inn Amsterdam(☆☆☆☆)

- 위치: De Boelelaan 2, Amsterdam
 - 공항에서 차량으로 15분, 다운타운까지 8km, Rai 트램역에서 도보로 3분 (Novotel Amsterdam 호텔 맞은편에 위치)
- 객실요금(Standard room 기준 - 정상가격)
 - 싱글 180유로, 트윈 200유로
- 인터넷 사용여건
 - 객실에서 Wireless 인터넷 이용 가능 (일일 22유로 - 카드구입 불필요 : 체크아웃시 계산서에 포함)
 - 비즈니스 센터에서 인터넷, 팩스 등 통신 시설 이용 가능
- 연락처
 - 전화: 31(0)20-646-2300
 - 팩스: 31(0)20-517-2764
 - 웹사이트: www.holidayinn.com (Holiday inn Hotel 글로벌 통합홈페이지)

□ A4 Schiphol (☆☆☆☆)

- 위치: Rijksweg A4 Nr. 3 Amsterdam
 - 공항에서 차량으로 5분, 다운타운까지 차량으로 20분, 공항 셔틀버스 30분 간격으로 운행
- 객실요금(Standard room 기준)
 - 싱글 130유로, 트윈 150유로

- 인터넷 사용여건
 - Wireless 인터넷 카드로 객실에서 인터넷 이용 가능 (일일 30유로)
 - 비즈니스 센터에서 인터넷, 팩스 등 통신 시설 이용 가능
- 연락처
 - 전화: 31(0)25-267-5335
 - 팩스: 31(0)25-262-9245
 - 웹사이트: www.volk.com (Volk 글로벌 통합 홈페이지)
- 호텔의 가격 정보는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했으며 성수기/비수기, 예약시기 및 투숙 일수 등에 따라서 요금이 크게 달라진다. 보통의 경우 현지 여행사나 인터넷 특별요금 등을 통하면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 식당

- 네덜란드의 식생활은 개신교의 영향으로 유럽 내에서도 다소 검소한 편이며, 전통적인 음식도 상대적으로 풍부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하지만 네덜란드가 유럽 내 중심에 자리잡은 덕에, 암스테르담의 다운타운에는 세계 각국의 레스토랑들이 몰려 있다.
- 한국 식당은 암스테르담 6개가 성업 중이다.

□ Sushi Time

- 위치: Strawinskylaan 13 1077 XX Amsterdam 암스테르담 무역관이 입주해 있는 WTC Amsterdam 건물내 위치 (5번 트램 및 51번 매트로 Amster Zuid/WTC역에서 하차)
- 주요메뉴: 일식
- 가격대: 20-30
- 홈페이지: N/A
- 연락처: 31(0)20-575-3200
- 기타 특이사항: WTC 건물 내 위치해 찾기 쉽다. 간편한 런치를 즐길 수 있는 일식 레스토랑으로 저녁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 Casa di David

- 위치: Singel 426 1017 AV Amsterdam (5번 트램 Koningsplein역에서 하차)
- 주요메뉴: 피자, 파스타 등 이탈리아 음식
- 가격대: 15-20유로
- 홈페이지: N/A
- 연락처: 31(0)20-624-5093
- 기타 특이사항: 다운타운에 위치한 이탈리아 식당으로 가벼운 점심 등을 해결하기 좋음.

□ De Roode Leeuw

- 위치: Damrak 93-94, 1012 LP Amsterdam 4, 9,16, 24, 25번 트램 다운타운담역에서 하차(5m)
- 주요메뉴: 현지식(해산물요리) 및 양식 등
- 가격대: 15-20
- 홈페이지: <http://www.hotellamsterdam.nl/restaurants.htm>
- 연락처: 31(0)20-555-0666
- 기타 특이사항: 다운타운 중심가인 담광장에서 바로 인접한 식당으로 비즈니스 관광시 최고의 교통편의성을 지닌 식당

□ Yamazato

- 위치: Ferdinand Bolstraat 333, 1072 LHSchiphol 공항에서 차량으로 15분, 다운타운까지 7km, 암스테르담 RAI 전시장역에서 도보 5분(25번 트램 Cornelis Troostplein 역에서 하차)
- 주요메뉴: 일식
- 가격대: 50-100유로
- 홈페이지: www.okura.nl
- 연락처 : 31(0)20-678-7111
- 기타 특이사항: 특급호텔인 오쿠라호텔 내 직영 일식레스토랑으로 대부분의 직원이 일본인이며 철저한 일식을 표방, 중요한 비즈니스미팅 등에 적합한 레스토랑

□ De Jonge Dikkert

- 위치: Amsterdamseweg 104a 1182 HG Amstelveen 암스테르담 외곽지대에 위치, 다운타운에서 15km, 공항에서 10km (Bus 166번 Molenweg정류장에서 하차)
- 주요메뉴: 각종 생선(연어)요리, 스테이크요리 등
- 가격대: 20-50유로
- 홈페이지: www.jongedikker.nl
- 연락처 : 31(0)20-643-3333
- 기타 특이사항: 네덜란드 전통풍차를 레스토랑으로 개조한 프렌치풍이 가미된 네덜란드 전통식당으로 주말 예약 필수

□ Excelsior

- 위치: Nieuwe Doelenstraat 2-8 Amsterdam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는 최고급 뢰로프 호텔내 위치 (4,16,24,25번 트램 Muntplein역에서 하차 도보로 2분 이동)
- 주요메뉴: 각종 양식 및 생선요리 등
- 가격대: 40-70유로
- 홈페이지: www.leurope.nl
- 연락처 : 31(0)20-531-1777
- 기타 특이사항: 암스테르담을 대표하는 최고급호텔인 뢰로프(De L'Europe) 호텔 내 레스토랑으로 약 500여종 3만여 병의 와인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암스텔강의 저녁야경을 아름답게 감상하며 상담할 수 있는 레스토랑임.

□ Bazar Amsterdam

- 위치: Rembrandtplein 26-36 1017 CV Amsterdam 다운타운 내 위치
(4,9번 트램 Rembrandtplein역에서 하차 도보로 1분 이동)
- 주요메뉴: 각종
- 가격대: 20-40유로
- 홈페이지: www.brasserieschiller.nl
- 연락처: 31(0)20-554-0723
- 기타 특이사항: 프랑스풍의 레스토랑으로 와인을 곁들인 비즈니스 접대에 좋은 장소

□ 미가(Mika)

- 위치: Buitenveldertselaan 158A, 1081 AB, Amsterdam
(5번 트램, 51번 매트로 van Boshuzenstraat역에서 하차)
- 주요 메뉴: 한식
- 가격대: 16-18 (찌게류 기준)
- 홈페이지: N/A
- 연락처: 31(0)20-661-4077

□ 화원 (Hwawon) / 칸(Khan) / 한국관(Korean Resaurant)

- 위치: Nederhoven 13/15, 1083 AM Amsterdam(5번 트램, 51번 매트로 vanBoshuzenstraat 역에서 하차 도보로 5분 이동. 화원, 칸, 한국관 3개 식당이 동일 블록 내 위치)
- 주요메뉴: 한식
- 가격대: 16-20유로 (찌게류 기준)
- 홈페이지: N/A
- 연락처:
 - 화원 : 31(0)20-642-3142
 - 칸 : 31(0)20-646-3722
 - 한국관 : 31(0)20-644-5273

□ Restaurant D'Vijff Vlieghen

- 위치: Spuistraat 294-302 1012 VX Amsterdam
(1,2,5번 트램 Spui-Nieuwezijds Voorburgwal역에서 하차)
- 주요메뉴: 각종 네덜란드식 생선 및 야채요리
- 가격대: 30-50유로
- 홈페이지: www.thefiveflies.com
- 연락처: 31(0)20-530-4060
- 기타 특이사항: 렘브란트 유화 4점이 걸려있는, 전통 네덜란드 요리를 접할 수 있는 식당. 주말에는 예약 필수

아. 관공서 관행

네덜란드 관공서는 효율성이 여타 EU국가와 비교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덜란드 관공서의 경우 행정절차상 필요한 사항은 대부분 Letter로 통보한다. 하지만 한번에 끝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상호 협조처리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며 이 때에는 서비스가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자. 공휴일

1) 개요

- 네덜란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 New Year's Day (신정) : 매년 1월 1일
 - Queen's Birthday (여왕탄신일) : 매년 4월 30일
 - Good Friday - Easter Monday (부활절 연휴)
 - Ascension Day (예수 승천일)
 - Christmas-Second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 : 매년 12월 25-26일

2) 2008년 공휴일 내역

공휴일	일자	참고사항
New Year's Day (신정)	1월 1일	
Easter (부활절)	3월 21~24일	전후 1주일간 휴업업체 다수
Queen's Birthday(여왕생일)	4월 30일	
Ascension Day(예수승천일)	5월 1일	
Whit Monday(성령강림일)	5월 12일	
Christmas (성탄절)	12월 25~26일	공식휴일은 25-26일 이틀간이나 실제로는 24일부터 신년 첫주까지 휴가를 갖는 기업들이 많음

3) 휴가기간

네덜란드인은 여타 유럽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휴가기간이 긴 편이다.

법정 공식휴가일수가 최저 20일(Working Day 기준)로 거의 한달 정도 휴가를 가기 때문에 방문 전에 반드시 방문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휴가가 7-8월과 12월에 집중되어 있어 사전에 방문 약속이 잡혀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기간 중 현지 방문 상담은 피하는 것이 좋다.

차. 여행시 유의사항

네덜란드 여행시 주의할 점은 기타 해외지역과 크게 다를 바는 없으나, 암스테르담과 같은 대도시 내 다운타운을 관광할 경우에는 소매치기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들 소매치기는 주로 중동, 아프리카 계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부분 단체로 행동하고 있다. 특히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다니는 동양인들을 표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길을 묻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도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중앙역, 박물관, 패스트푸드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소매치기가 성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강도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의 옷에 이 물질을 묻힌 후 죄송하다고 한 후, 인근 화장실로 유인한 후 금품을 뺏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가능한 여러 사람이 있는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함.)

또한 사복경찰을 사칭하는 2인조 강도가 마약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신분증 및 지갑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경찰에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주의가 가끔 발생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위조화폐 검사를 한다고 다가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여행경비는 가급적 여행자수표로 준비하고 현금을 소지할 경우는 꼭 필요한 금액만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비행티켓이나 여권은 숙소에 보관하고 사진기나 비디오 카메라와 같은 귀중품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주의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현금을 찾아야 할 경우에도 어두운 골목이나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서는 현금을 찾지 않는 것이 좋다.

기타 관광정보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안내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로 소재하고 있는 관광안내소(VVV)에 문의하거나, 현지인들의 영어소통이 원활한 장점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카. 유용한 연락처

1) 비상 연락처

네덜란드 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들은 아래와 같다. (국가번호 생략)

- 네덜란드주재 한국대사관: 070-358-6076
- 암스테르담무역관: 020 673-0555
- 외환은행 암스테르담지점: 020-546-9331
- 경찰: 112 (범죄신고 및 응급차 요청 시)
- 화재시: 112
- 앰블런스 요청: 112
- 긴급의사 문의: 3455300
- 야간약국: 일간지 또는 각 약국문에 안내문(약국- APOTHEEK, 병원 - ZIEKENHUIS)
- 물건분실 센터: 3619669

2) 여행필요 연락처

- 전화번호 문의: 0900 8008 (국내), 0900 8418 (국제)
- 네덜란드 철도청: 0900 9296
- 대중교통 안내: 0900 9292
- 교통상황 안내: 0900 9622 (국내)
- 스키폴 국제공항: 0900 0141
- ANWB 여행 안내: 0900 910 910 1
- 한국인 운영여행사
 - NTS(Nederland Tour Service)
 - 전화번호: 023-562-4056
 - E-mail : nederlandtour@planet.nl
 - Euhan Creative Tour Service
 - 전화번호: 020-640-7022
 - E-mail : euhan-loc@xs4all.nl
 - Daehan Travel
 - 전화번호: 020-697-4720
 - E-mail : scson@chello.nl

타. 기타 유용한 정보 (비즈니스 쇼핑)

네덜란드는 소박한 국민기질 탓으로 제품에 있어 대부분 실용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다이아몬드 및 델프트 도자기 등 네덜란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고가제품도 눈에 띈다. 추천할만한 상품은 델프트자기, 백납제품(Pewter), 제품수공예품, 가족제품, 베흐시장에서 의 각종 골동품, 세계적 유명아동복 브랜드인 Oiiiily 등이다.

- Bijen Korf
 - 암스테르담 다운타운 중앙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최고급백화점
- Magna Plazq
 - Bijen Korf와 같은 블록 내에 있는 백화점으로 옛 우체국건물을 활용, 고풍스럽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겨 관광객들이 종종 방문
- P.C. Hoofstraat (명품거리)
 - 반고흐박물관 뒤쪽으로 고급브랜드들이 즐비한 명품거리로 매년 8월 및 1월초 세일 기간으로 접어든다.
- Nieuwmarkt 베흐시장
 - 5월부터 9월말까지 매주 일요일 다운타운과 인접한 Nieuwmarkt 광장에서 앤티크 베흐시장이 열린다.

파. 관광명소

1) 암스테르담

□ Rijksmuseum (네덜란드 국립박물관)

15~19세기 네덜란드의 미술품, 선사시대 이후 네덜란드 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거장 램브란트의 "Night Watch"(야경꾼)이 전시된 네덜란드 최대의 국립박물관

- 홈페이지 : www.rijksmuseum.nl

□ Van Gogh Museum (반고흐 박물관)

유화작품 200여점, 데생 500여점 및 편지 700여 개를 전시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반 고흐 소장품 미술관으로 반고흐 작품 이외에 기타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도 전시

- 개장시간: 매일 오전 10시~오후 18:00(매표소 17:30까지)
- 안내전화: +31 (0)20 570 5252
- 홈페이지: www.vangoghmuseum.nl

□ Anne Frank House (안네 프랑크의 집)

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부터 1944년까지 유대인소녀 안네 프랑크 일가가 독일 나찌군의 만행을 피해 은둔했던 장소

- 개장시간 : 매일 오전 9시~오후 7시, 4월 1일~9월 1일까지는 오전 9시~오후 9시, 1월 1일과 12월 25일은 오후 12시~5시
- 홈페이지 : www.annefrankhuis.nl

□ Damrak (담광장)

암스테르담의 중심지라 할 수 있으며, 광장 주위에 구 왕궁 및 2차 대전 위령비가 소재해 있음. 이곳에서부터 Kalverstraat까지 이어지는 쇼핑거리가 유명하며 Magma Plaza 등 유명 백화점들도 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 기타

운하관광: 관광유람선을 이용, 암스테르담의 주요 운하를 따라 운행. 약 1시간여 소요.
다이아몬드 커팅센터: Coster Diamond 및 Gassan 등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다이아몬드 커팅 시범을 보인다. 한국인 직원의 안내로 구매도 가능하다(반고흐 박물관 맞은편에 위치).

2) 헤이그

□ Madurodam (마두로담)

암스테르담의 옛 건물, 알크마르의 치즈시장 및 델타프로젝트 등 네덜란드의 명소들을 1:25로 축소해 놓은 미니어처 공원

- 개장 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www.madurodam.nl

□ Binnenhof (비넨호프)

13세기 고딕양식의 궁으로 영주의 성으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국회 의사당으로 사용되고 있음

□ Peace Palace (평화궁)

- 국제사법재판소 건물
- 홈페이지: www.peacepalace.nl/

□ Yi Jun Peace Museum (이준 열사 기념관)

1907년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 2회 만국평화회의의 사절단으로 참석했다 순국하신 이준 열사 박물관으로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음. 헌화용 꽃 준비필수

□ Scheveningen (스헤브닝혼 해변)

네덜란드 최대의 해변으로 연중 내내 해외 및 국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주변에 각종 위락시설 및 식당가가 즐비해 있음.

3) 기타 지역

□ 로테르담항

세계 최대 화물처리항구로서 Europort라고도 불린다. Speedo(쾌속유람선)를 이용 관광 가능

□ Afsluitdijk (북해댐)

북해를 가로질러 Noor-Holland(북홀랜드주)와 Friesland (프리슬란드 주)를 잇는 총 33km의 거대한 제방

□ Zaanseschanse (풍차마을)

네덜란드 전역에 분포되어 있던 각종 옛 풍차들(종이 및 기름제조 등)을 옮겨 재조립하여 관광지로 조성한 민속촌으로서 현재도 주민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생활하고 있음. 민속촌 내에 나막신과 치즈제조 공장 및 상점이 있음

- 홈페이지: <http://www.zaanseschans.nl>

□ Keukenhof (케큰호프)

세계최대의 튜울립 공원으로 매년 튜울립이 피는 3월말에서 5월 중순까지 개장

- 개장시간 :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30분
- 전화 : +31 (0)252 465 555
- 홈페이지 : www.keukenhof.nl

□ Aalsmeer Flower Auction (알스미어 화훼경매장)

세계 최대의 화훼경매장으로 일반인들도 경매관람이 가능

- 홈페이지 : <http://www.vba-aalsmeer.nl/english/>

□ Volendam (볼렌담)과 Marken (마르켄섬)

네덜란드의 전형적인 어촌 민속마을로 목조형 가옥이 아름답음.

□ Delta Expo

네덜란드 남부 Zeeland(제이란드주)에 위치한 개발과 환경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방조제로 유명

□ Delft (델프트)

네덜란드의 특산품 중 하나인 Delftblauw(청색도자기)의 고향으로 TU Delft(델프트공대)가 소재한 곳

□ 알크마르 옆의 작은 마을 Schoorl

치즈시장이 열리는 알크마르 부근의 Schoorl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작고 조용한 아름다운 마을이며, 마을 자체는 아주 작기 때문에 숙박 및 관광시설, 거리의 카페 및 교회 등도 모두 아기자기해서 네덜란드 특유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관광 명소다.

- Schoorl 관광안내소(VVV Schoorl – Groet – Camperduin)
- Tel: 072 – 5091504 <http://www.schoorl.info/>

□ 국립공원 De Hoge Veluwe

5천 헥타아르에 달하는 네덜란드 최대의 자연보호 국립공원으로 600여 마리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음. 입장료는 공원입장만 아동 6~12세까지 2,50유로, 어른 5, 공원과 미술관 입장 포함은 아동 5, 어른 10임

개장시간은 오전 8시부터, 폐장은 월별로 조금씩 다른데 4월과 9월은 오후 8시, 5월과 8월은 9시, 6-7월은 10시, 10월은 7시, 11월부터 3월까지 9시 개장, 오후 5시 30분 폐장

Het Nationale Park De Hoge Veluwe는 Arnhem, Ede 그리고 Apeldoorn 사이에 위치, 공원입구는 Hoenderloo, Otterlo, Schaarsbergen에 있음

- 전화: 0900 46 43 835 <http://veluwe.businessmedia.nl>

□ Texel

길게 펼쳐진 모래사장이 인상적임

- 네덜란드 북서쪽 위치한 Den Helder에서 매시간 운행하는 페리 이용
- 전화: 0222-369691/369692 www.teso.nl
- Texel 관광안내소(Emmalaan 66, Den Burg)
- 전화: 0222 314741, www.texel.net

□ Kinderdijk (전통 풍차마을)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관광지로 네덜란드 내에서 유일하게 10개 이상의 전통 풍차를 보존. (총 24개의 풍차)

로테르담에서 서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어 교통이 상당히 불편함.